metro

메트로 2014년 8월 28일 목요일

사적연금 활성화대책 발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2016년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모든 기업 적용
도입 안하는 업체엔 과태료… 中企 부담 과제로

노인빈곤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 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고령화 시대에 국민연금 만으로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따라 빈곤층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일반 국민에게는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추가해 노후 생활의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간제 근로자도 퇴직연금 가입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으로 확대된 뒤 2022년에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특히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간제 근로자와 월 단위로 계약을 경신하는 아르바이트생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적립금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만 남겨두고 개별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한다.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확정급여형(DB)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우월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으론 태부족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8.5%로 미국의 19.1%, OECD 회원국 11.6%에 비해 크게 높다.

이런데도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가입자 평균 가입기간이 8.1년에 불과하다. 소득 대체율도 40년 가입기준으로 봐도 47%에 지나지 않는다.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퇴직연금 도입률은 16%에 불과하다. 특히 급여가 많지 않은 영세·중소기업의 도입이 저조하다.

게다가 퇴직연금 중도 해지가 많고 연금보다 일시금 수령이 많은 점도 노후 자산으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업 추가 부담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공적연금을 보완할 사적연금 제도 활성화와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 연금실장은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한 3층 연금체계 중 2층인 사적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제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금 손실 위험과 기업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 변경에 따른 기업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철도파업 엇갈린 해석

대법 잇따라 '유죄취지' 파기 환송

대법원이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 등 2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노조의 파업 예고에도 실제 강행을 예측할 수 없었고, 당시 파업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회사 측이 이들의 파업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파업의 전격성을 인정할 수 없고, 열차 운행 중단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인 탓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모(42)씨 등 9명과 김모(48)씨에 대한 2건의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씨 등은 2006~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 에 반대하고 한국철도공사의 정원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다가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윤다혜기자 yah@

계급장 달아주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수창 경찰청장에게 진급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與·유족 대화 또 '평행선'

"수사·기소권 부여"vs"안돼"… 내달 1일 다시 만나기로

새누리당 지도부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표단이 27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두 번째 면담을 가졌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유족 측은 세월호법 제정 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사법체계를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3시간여간 '마라톤 면담' 직후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갖고 있다"며 "입장과 생각은 다르지만 추후 진전된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유족 측은 조사위에 계속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진척이 별로 안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여야 합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 역시 "지난 월요일과 비교해 전혀 진전된 게 없다"며 "여당은 기존 재합의안을 계속 관철하고 설득하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었다"고 아쉬워했다. 새누리당과 유가족 대표단은 다음달 1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이틀째 장외투쟁을 벌이며 새누리당에 세월호법 제정을 위한 여·야·유가족 3자 협의체를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특히 여당이 '민생법안 분리처리론'으로 공세를 펴는 데 대해 "세월호법이 가장 시급한 민생"이라면서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로써 세월호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소리기자 sgkle@metroseoul.co.kr

진척없는 대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27일 국회 원대대표실에서 세월호 유족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 대 50' 교복시장, 판도 바뀌나

기자 수첩

김학철 <생활레저부 기자>

교육부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25일 보완책을 내놨다. 그간 재고문제·위장 경쟁 방법·납품 시기 등을 문제 삼은 업계의 말을 일부 수용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 20%의 스마트와 30%를 차지한 5개 중견 교복 업계(282개 사업체 소속)와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엘리트·스쿨룩스·아이비클럽 등 이른바 '빅4' 중 3곳은 참여하지 않았다.

협약 내용 중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해 2015년 1년에 한해서는 신품 낙찰가 이하의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경쟁 촉진을 위해 교육청 판단에 따라 시·도별 입찰 권역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형 브랜드사의 대량 예측생산과 마케팅 활동으로 과점 현상이 빚어나 재고 부담이 늘었다"며 "수요에 맞는 주문 생산이 가능해져 중소업체에 오히려 친환경이 조성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교복협회는 교육부의 보완책에 전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7일 교복업계 종사자 약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생존권 사수 결의 집회를 시작한 것이다. ▲소비자의 개별구매선택권 상실 ▲수급 문제로 학부모 이중비용 발생 ▲영세 교복업자의 도산 위기 등이 골자다.

이로써 사실상 교복 시장이 50대 50으로 나뉘게 됐다. 스마트를 필두로 한 '군소 연합'과 빅4 업체 중 1곳이 포함된 협회가 맞붙은 형상이다. 내년 교복 착용 중·고교는 5000여개다. 입찰은 진행 중이고 내년 3월까지는 시간이 얼마 없다. 교복 시장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뉴스&뉴스

美 군사매체 "北,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 개발"

●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개발 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 한 군사전문매체는 26일(현지시간) "북한 잠수함에 장착된 미사일 발사관이 최근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목격돼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새로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내년 제대 군인 취업지원 교육원 설립

● 제대 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국방전직교육원이 내년 1월에 설립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전역을 앞둔 군인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현역 군인 대상 전직 교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방전직교육원을 내년 1월까지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T-50 수출 기술료 60억 못받아"

● 방위사업청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T-50 고등훈련기 수출을 허가하면서 기술료 60억원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은 지난 3월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문제점 등 5건의 부적정 사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송광호 윤리특위장때부터 '검은 돈'

2년간 11차례 6천여만원 체포동의안 제출

'철도비리'에 연루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던 때부터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왔다는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5일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의 이모(55) 대표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도 겸직하던 때였다.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송 의원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계속해 금품을 받았다. 그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 등지에서 이 대표 측으로부터 2년간 11차례에 걸쳐 받은 뒷돈은 모두 6500여만원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 명의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AVT와 결탁해 레일체결장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박모(55) 책임연구원을 최근 구속했다. /윤다혜기자 yuhila

"입대동기로만 분대, 시범 거쳐 결정"

육군은 현재 운용 중인 입대 동기생으로만 구성된 분대와 소대의 시범 부대를 확대해 장단점을 심층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27일 "입대 동기생 분대·소대 편성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2개 대대에 시범 운용 중"이라며 "앞으로 몇 개 부대에서 추가 시행하고 나서 장단점을 심층 검토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현재 2사단과 20사단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시범 운용되고 있다. 육군은 또 입영 시기가 같은 상병 계급 위주의 '동기생 내무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김요환 육군 참모총장은 26일 경기도 의정부 306보충대 입영식에 참석해 "입대 동기끼리 분대나 소대를 만들어 근무해 상하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의 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illegible]

"횡령한 돈 구원파에 썼다"

유대균 첫 공판 일부 혐의 부인… 박수경 "친분에 사건 휘말려"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도피조력자 박수경(34·여)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내용 중 사실 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은 범죄액수 전체를 합쳐 특경가법을 적용했지만 피해 회사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쿠리 상사에서 받은 급여 1억1000만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며 "횡령한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말했다.

대균씨는 첫 공판 전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린 부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앞서 열린 박씨를 비롯한 구원파 신도 이모(35·여) 등 도피조력자 3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의견서에서 "유대균 부인이다 아이들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사건에 휘말려 처음 의도와는 달리 장기간 도피하게 됐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대균씨와 박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추석 맞이 전통시장 주변 2시간 주정차 허용 추석 명절을 맞아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국 435개 전통시장 주변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27일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주변 회계로에 주정차 허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감 파행에 죽어나는 보좌진

여의도 재트볼

국정감사는 국회의 1년 농사에 비유된다. 그만큼 보좌진에겐 중요한 능력 평가의 장이다. 국감 전후에 보좌진 이직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도 의원실에서 국감 대비나 국감 사후평가 때 나가게 되는 보좌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올해 분리국감이 무산됐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시작됐어야 할 국감이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다. 세월호 여파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국감에까지 미치고 있다. 지금과 같은 파행이 지속되면 연말 예결산 심사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공산이 크다.

이번 국감부터는 보다 충실하게 하자는 여야 합의에 따라 8월과 10월 나눠 하기로 했었다. 때문에 많은 보좌진이 여름휴가도 가지 못하고 8월 국감을 준비했다. 국회도 다른 직장과 마찬가지로 7월 말 8월 초에 휴가를 가는데 올해는 8월 국감을 준비하며 휴가를 포기한 의원실이 적지 않다. 특히 4월 이후 세월호 관련 업무를 하는 의원실은 더욱 여유가 없었다. 세월호와 국감이라는 큰 이슈에 많은 보좌진이 파묻혀 있다.

그래서 이번 국감은 예년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의원실마다 국감을 준비한 정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월호와 관련성이 적고 부지런한 의원실은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국감에 쓰일 자료 분석 결과물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변칙적으로 진행된 지 벌써 2주 정도 된다.

국감이 9월 중순 혹은 10월 초에 열리면 의원실에 따라 국감 아이템을 다 소진한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분리국감은 무산됐지만, 보도자료를 통한 국감 시즌은 사실상 진행 중이다. 국감이 두 달 이상 계속되는 셈이다.

따라서 전년에 비해 보좌진의 부담은 배가 된다. 기관당 10개 정도의 국감 아이템을 발굴하면 됐던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그 이상을 찾아야 보도자료용과 국감 질의용을 따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2회의 국감을 준비해야 하는 보좌관들은 울상이다. 세월호도 겹치는 의원실 보좌진의 부담은 상당하다. 차라리 상임위별 상시국감체제로 가자는 얘기가 최근 더 나오는 이유다. 보좌진 입장에선 상시국감을 환영한다. 기자들도 담당 상임위별로 보도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몰아서 하는 현재보다 여유로게 된다. 한 달에 몰아서 하는 국감은 항상 이벤트성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내년엔 최소한 분리국감, 나아가서는 상시국감이 가능하길 기대해본다. /유보좌

창원 버스 시신 4구 추가 수습

실종 1명… 긴박했던 블랙박스 영상 공개

경남 창원 시내버스 사고 실종자를 수색중인 합동대책반은 27일 시신 4구를 추가로 수습했다.

대책반은 이날 오전 오전 6시 55분께 진동 광암 방파제에서 20m 떨어진 해상에서 사고 버스 운전사 정모(52)씨의 시신을 수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발견 장소는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1.8㎞ 떨어진 곳이다. 이어 오전 8시께 송도섬에서 500m 떨어진 해상에서 박모(40)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또 오전 9시57분께 사고 현장에서 4㎞가량 떨어진 송도섬 앞바다에서 60대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 1구를 인양했다.

10시 23분께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동대에서 송도 방면 500m 해상에서 박씨의 부인인 이모(33)씨의 시신을 찾았다.

이로써 대책반은 전날에 이어 시신 5구를 수습했다. 사고 당일에는 안모(19·대학 1년)양이 버스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현재 사고 버스에 탄 7명 가운데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상태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29일 사고 버스에서 수거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38초 분량으로 침수된 도로를 운행하던 버스가 급류에 휩쓸려 하천에 빠진 뒤 떠내려가다가 다리 교각에 부딪힌 순간까지 긴박한 상황을 담고 있다.

'포천 빌라' 피의자 남편도 살해

검찰 내연남 등 2명 살인·아동학대 혐의 구속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 피의자가 외국인 내연남 뿐만 아니라 남편도 살해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은 27일 남편 박모(51)씨와 내연남이자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고 8살 아들을 두 달간 방치해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이모(50)씨를 구속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가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행위와 아동 학대 혐의만 밝혀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었다.

그러나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씨가 수면제와 고혈압약을 먹이는 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뒤늦게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가검물 정밀분석과 부검 결과를 토대로 검찰이 이씨를 추궁해 밝혀냈다.

지난달 29일 포천시 신북면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시끄럽게 울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작은 고무통 속에서 심하게 부패한 남자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윤다혜기자

서울대병원 노조 파업

서울대병원 노조가 2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서울대병원 정상화를 내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병원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들어갔다.

파업에는 간호·급식·환무·의료기사·환자이송 등 전체 조합원 1200여명 가운데 4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노조 측은 잠정 집계했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전원을 비롯해 필수유지인력은 정상 근무했다.

노조는 6월과 7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경고 파업을 했지만, 병원 측의 입장 변화가 없어 부득이하게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다혜기자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 아이스버킷 동참

전혜정 서울여대 총장이 26일 본교 학생누리관 앞에서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전 총장은 얼음물 샤워 뿐만 아니라 한국ALS협회에 100달러를 기부했다.

전 총장은 또 자신에 이어 캠페인에 동참할 사람으로 이건 서울시립대 총장과 박동진 서울여대 교수, 이계원 직원을 지명했다.

앞서 전 총장은 이 대학 전은비 총학생회장의 지목을 받고 캠페인에 참여했다.

아데니아, 지성℃ 개최

중앙대학교 인문예술융합아카데미 '아데니아'는 26일 중앙대 평동캠퍼스에서 인문콘서트 '지성℃(지성도씨)'를 개최했다.

이번 인문콘서트에서는 영문석 여행 작가의 영화 '명랑'을 주제로 한 문화코드로 여행을 떠나다 강의에 이어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배순탁 PD의 '영화로 보는 대중음악' 등 특강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는 전지영 교수의 '대중문화 속 음식이야기' 강의가 이어졌다.

"2018수능 영어 절대평가"

현재 중3… "사교육 방지 차원, 연착륙 방안 고민"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응시하게 될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에서 절대평가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큰 방향에서 잡고 있다"며 절대평가 도입 계획을 밝혔다.

황 장관은 "2017학년도부터 하느냐 2018학년도부터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등을 실무선에서 마지막 단계로 전문가들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라면서도 이른바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를 지켜야 한다고 밝혀 영어 절대평가제 도입시기는 2018학년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과도한 사교육 시장과 수십 년에 걸친 영어 투자가 무슨 결실을 냈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며 "국민이 이 정도 하면 해외에서 소통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정해 영어교육을 하면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싶다"고 절대평가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황 장관은 "3년 예고를 하더라도 덜컥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꾸면 큰 충격이 될 수 있어 중간단계를 어떻게 만드느냐, (절대평가로) 연착륙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다혜기자 yoh@metroseoul.co.kr

'태양호' 마지막 실종자 발견

3명 모두 사망… 선장 구속영장 신청

지난 22일 새만금방조제 신시배수갑문에서 전복된 태양호 실종자 3명 중 마지막 실종자였던 동티모르 선원 알시노(25)씨가 27일 오전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45분께 신시배수갑문 앞 700m 해상에서 알시노씨의 시신을 도보 순찰 중인 경찰이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6일 발견된 실종자 이천호(57)·마르세리누(26·동티모르)씨의 시신에 이어 태양호 전복사고 실종자 3명은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들이 모두 발견되면서 해경은 배수갑문이 열린 위험한 상황에서 조업을 지시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선장 김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태양호는 22일 오후 7시께 신시배수갑문이 열린 상태에서 조업하다가 물살에 휩쓸려 갑문에 부딪혀 전복됐다. 당시 선장 김씨와 선원 2명은 구조됐다.

/김민준기자

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 재개장 27일 서울 광진구 능동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을 찾은 어린이와 시민들이 회전의자 등 놀이기구를 즐기고 있다. 2년만의 재개장을 기념해 이날 모든 놀이기구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다. /연합뉴스

"불륜 폭로" 협박 '돈 뜯긴' 공무원들

50대 공갈범 구속

경기도내 관공서와 학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공무원 등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27일 공갈 혐의로 김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6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내 학교·교육청·세무서 등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는 공무원 등에게 "불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교원 6명에게서 300만~500만원씩 모두 2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2차례 같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씨는 2009년 구속수감돼 5월에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다수는 승진을 앞두고 혹시 모를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해 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다른 공무원 200여명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윤다혜기자 yoh@

청계천 물줄기로 충전하세요

소형 수력발전기 설치… "3개월 시범운영 후 확대"

서울시가 청계천의 물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무료로 충전해주는 '소수력 스마트폰 충전부스'를 선보인다. 태양광을 이용한 스마트폰 충전시설은 광화문에 있지만 수력 발전을 이용한 시설은 처음이다.

김학진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27일 "청계천 광통교 위에 소형 수력발전기 3대를 설치하고, 산책로에 2개 등 총 5개의 충전기를 갖춘 충전부스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형 수력발전기는 댐이나 보 같은 별도의 구조물 없이 간단히 터빈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주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기를 쉽게 탈·부착할 수 있어 비가 많이 올 때는 떼어냈다가 다시 설치할 수도 있다.

청계천에 설치되는 수력발전용 충전부스.

시는 3개월간 충전기를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청계광장·폭포 등 설치장소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준기자

우체국 해외배송 쉬워진다

앞으로는 우체국을 이용한 해외배송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27일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우정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우체국 국제특송 계약고객은 '인터넷우체국'에서 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 등 3개 국어로도 접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터넷우체국 접수시스템에서 배송을 위한 정보를 영어로만 입력하도록 돼 있어, 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로 주문을 받으면 영어로 전환해 접수해야 했다.

이용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 또는 biz.epost.go.kr)에 접속해 미리 일본어 등으로 작성된 목록을 업로드 하거나 건별로 입력하면 된다.

해외도피 사범 절반 이상 못 잡아

도피처로는 중국 선호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이들 절반 이상이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의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외도피사범 3890명 중 55.8%에 해당하는 2175명이 미검 상태다.

범죄유형별로는 사기 혐의를 받는 도피사범이 13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247명 ▲마약 149명 ▲배임 99명 ▲절도 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검율은 강도, 위증 피의자가 동일하게 75%로 가장 높았다.

국외도피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707명이 숨어든 중국으로 나타났다. 미국으로도 564명이 도망갔으며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5명 순이다.

/윤다혜기자

"전쟁 드디어 끝났다"

팔레스타인 주민 축포…가자봉쇄 완화 등 승리로 여겨

몸이야? 말이야? 26일(현지시간) 프랑스 낭트에서 기계로 작동되는 용마가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 이 용마는 프랑스와 중국 수교 50주년의 일환으로 10월 17일 베이징에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AFP 연합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26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사태의 장기 휴전에 합의했다. 50일 전쟁이 막을 내리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은 거리로 나와 축포를 쏘며 흥분을 터뜨렸다.

한 가자주민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이 끝나 신에게 감사한다. 아이들과 지금까지 살아남아 기쁘다"고 말했다. 교전 기간 은신하던 하마스 대원들도 거리에서 소리지며 기뻐했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이날 축제 분위기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축하용으로 발사된 총격에 주민 1명이 목숨을 잃고 19명이 다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은 희생자는 많았지만 이번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는 입장이다. 휴전 합의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어업 가능 구역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조치다.

26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어린이들이 손에 총을 든 채 휴전 합의에 환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스라엘도 얻은 게 있다. 하마스의 주요 세력을 제거했고 무장 수준도 낮췄다. 그러나 하마스의 무장해제 등 평화 정착을 위한 조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는 전했다.

한편 약 7주간 이어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이날까지 팔레스타인인 2140명이 숨지고 1만1000여 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민간인은 약 75%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같은 기간 민간인 5명과 군인 64명 등 69명이 사망했다.

/조선미기자

Ils font l'amour en public, les promeneurs appellent les gendarmes

공원서 '알몸 사랑' 커플

metro France

산책하던 시민들 충격

프랑스의 한 공원에서 한 커플이 나체 상태로 사랑을 나누던 중 산책하는 사람들의 신고로 붙잡혔다.

지난주말 론알프스의 앵(Ain)에 위치한 한 공원을 산책하던 사람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전했다.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즐겨찾는 공원에서 나체 상태의 두 남녀를 발견한 것.

이 커플은 풀밭이 펼쳐진 공원 한복판에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당시 이들을 본 한 사람은 "충격을 받고 반대편으로 돌아갔지만 그쪽에서도 훤히 보였다.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밝혔다. 이후 목격자들이 경찰을 불러 커플은 조사를 받았다.

당시 둘을 본 목격자는 상당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이를 둔 부모들이 커플을 발견한 뒤 자신의 아이들에게 근처로 가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제롬 ... 기자
정리=정주희 인턴기자

"에볼라 감염지역서 의료직원 잠정 철수"

세계보건기구(WHO)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감염 지역에 있는 의료 직원들을 잠정 철수시킨다.

WHO는 최근 시에라리온에서 직원 1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돼 나머지 직원들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WHO 관계자는 "현장 직원들이 동료의 에볼라 감염으로 심각한 심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번 조치를 취했다"면서 "에볼라 감염 환자들을 돌보느라 지쳐 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스까지 더해져 이들의 에볼라 발병 위험도 훨씬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 철수로 현장 업무가 잠시 중단되지만 이른 시일 내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미기자

market index <27일>

코스피	코스닥
2074.93 (+6.08)	567.23 (-1.10)
금리 (국고3년)	**환율** (원/달러)
2.53 (-0.01)	1014.00 (-2.80)

관악산 '행복동행길' 조성 SK텔레콤은 서울 관악산 등산로를 따라 조성한 행복동행길에 고은 시인의 시가 담긴 엽서판 11개를 설치했다고 27일 밝혔다. /SKT 제공

해외여행 면세한도 600달러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를 현행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정부는 관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유주영기자 boa@

사적연금 확대 노후보장 강화 포석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근속 1년 미만도 가입

정부가 27일 내놓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은 연금과 관련한 법·세제도 금융 세제 등을 아우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연금 가입 인센티브

정부는 기업의 퇴직연금 도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세제혜택·재정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눠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점차 퇴직연금으로 선화하도록 한다.

◆자산운용 규제 네거티브 전환

운용 측면에서는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본적으로 자산운용 규제 중 위험자산 보유 한도만 남겨두고 주식과 예·적금 등 개별자산 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는 확정급여형(DB)과 같이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방식도 전환하기로 했다. 단 파생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고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만 가능하다.

◆소비자 보호 강화

정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강화한다.

연금 판매에서 운용, 공시까지 단계별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우선 판매단계에서는 퇴직연금 투자 권유 준칙을 도입해 가입자 위험성향 진단, 생애주기별 자산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운용단계에서는 수익률이 사전에 정한 일정구간에서 벗어나면 즉시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한도 대비 위험자산 보유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사전 고지하도록 한다.

◆연금 조정기능 협의회 구성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방안도 마련됐다.

기재부 주관으로 오는 10월 관계부처 민간연구기관 관계자, 연금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금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연금정책의 방향과 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조정기능을 맡게 된다.

/유주영기자 boa@metroseoul.co.kr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주요 내용

분야	주요 세부 추진과제
퇴직연금 도입·가입 확대	-기업규모별 단계적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재정지원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가입 확대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
자산운용 탄력성 제고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단순화·완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투자위원회·투자원칙보고서(IPS) 의무화 -개인연금 상품 다양화
수급권 보호 및 연금화 유도	-공시 등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DB형 사외적립비율 상향 -DC형·IRP에 대한 별개 예금자보호한도 적용 -부득이한 연금계좌 인출시 세금부담 완화 -연금수령시 세금부담 30% 경감
인프라 구축	-연금정책협의회 정례화 -개인연금법 마련 -연금 관련 교육·컨설팅 강화

연합뉴스 자료/기획재정부

DC는 벤처, DB는 대기업 유리

사적연금과 관련한 주요 용어가 생소하다면 다음 설명을 참조하면 된다.

◆사적연금=노후 보장을 위해 국가나 법률이 정한 특수법인 등이 운영하는 공적연금과 대비되는 것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운영주체가 된다. 공적연금은 가입이 강제되지만 사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사용자(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다.

근로자 개인별 계좌가 있기 때문에 직장을 옮겨도 계속해서 운용할 수 있지만 투자 방법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DC는 연봉제나 임금 피크제 실시 사업장,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경영이 불안정한 사업장에 적합하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회사는 은행 등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 수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종 연금액 산정시 기초가 변할 경우 회사는 위험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DB형은 대기업처럼 상대적으로 경영이 안정적인 기업에 적합하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근로자가 이직하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개인계좌다. DB형, DC형에 상관없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이 계좌에 적립할 수 있다.

퇴직금 이외 다른 여유자금의 추가 납입도 연 12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김형석기자 hasm1@

금융권 "'기금형 퇴직연금' 시기상조"

정부가 27일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과 관련, 금융권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시장 축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란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방식이다. 오는 2016년 7월부터 대규모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들이 기금형 제도를 도입해 금융기관이 아닌 기금에 적립금을 맡기게 되면 결국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시장 규모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오는 2022년까지 퇴직연금을 의무화해 전체 퇴직연금 시장이 커지더라도 큰 기업들이 기금형 제도로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 전체 시장은 축소될 것이란 지적이다.

생명보험업계 한 관계자도 "한국형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기금형 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며 "근로자 이익 대변 문제나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등 현 계약형 제도의 한계도 있지만 이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2012년 일본 AIJ자산운용의 기금형 퇴직연금 금융사고 등을 사례로 들며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법령 개정 작업이 남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제도 변화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시중은행 퇴직연금 담당자는 "기금형 제도라고 해도 퇴직연금 사업자가 관여해야 할 부분은 남아있다"면서 "아직 법안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결정될지는 지켜봐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투자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전에는 지나치게 안정성 위주로 투자해야 돼 주식시장이 좋을 때도 수익률에 제약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계약자가 위험선호도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수익률의 상품을 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김현기기자 hk1@

연금복권520 제165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1등	월 500만원×20년	5조	107252
		4조	457746
2등	1억원	1등의 전후 번호	
3등	1000만원	각조	201332
4등	100만원	각조	54025
5등	2만원	각조	829
6등	2000원	각조	67
7등	1000원	각조	4

출처: 나눔로또 공식홈페이지(www.nlotto.co.kr)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청진동) 세종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회 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진호
광고문의 02)721-9854~9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31일 창간/정기간행물 서울특별시 가00016

공격투자 늘리는 과학기술인공제회…왜?

Issue&View

해외로 눈돌리는 공제회

/[illegible] 기자 hik@metroseoul.co.kr

900억 펀드 조성… 저금리 속 위험자산 투자 관심

2조원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과기공)가 잇따라 공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관심을 끈다.

국내 주요 연기금과 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체투자 부문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가운데 과기공도 해외 재간접 헤지펀드 등으로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지난 21일 해외 재간접 헤지펀드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펀드 자금 규모는 총 900억원 안팎으로서 다음 달 4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오는 10월 24일까지 해외 위탁운용사 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공제회 해외 헤지펀드 열풍

과기공은 이번 선정을 통해 처음으로 해외 재간접 헤지펀드 투자에 나선다.

국내 시장에서 해외 재간접 헤지펀드 수요의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한국투자신탁과 우리투자증권이 과기공과 함께 위탁운용사 선정에 참여한다.

재간접 헤지펀드는 5~10개의 개별 헤지펀드를 하위 펀드로 구성한 일종의 엄브렐러 펀드로서 헤지펀드 분산투자 효과를 노리는 특징이 있다.

올 들어 대체투자 부문에서 부동산 투자비중을 줄이고 기업과 주식·채권 비중을 늘린 과기공이 해외 헤지펀드로까지 투자 범위를 적극 확대한 것이다.

그동안 해외 재간접 헤지펀드에 투자한 기관은 지난해 행정공제회와 교직원공제회 정도에 불과했으나 최근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와 함께 이번 과기공까지 점차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기공은 최근 국민연금과 함께 국내 기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셰일가스 관련 펀드에 300억원 투자하기로 하는 등 잇따라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단행 중이다.

◆퇴직연금 '+α' 수익률 노려

과기공의 이러한 변화는 대체투자 부문의 포트폴리오 전환에 기인한다. 과기공은 오는 2017년까지 현재 대체투자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을 34%로 줄이고 기업실물·특별자산과 주식·채권 비중을 각각 33%씩 확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와 올해에 동양매직과 미국 펀드의 케이스위스(K-SWISS)의 인수를 위한 PEF(사모투자전문회사)를 포함, 각종 PEF에도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투자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 같은 투자전략 전환은 실제 수익률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체투자 부문의 연간 수익률 순위를 보면 과기공이 5.8%로 지방행정공제회(4.6%), 군인공제회(4.3%), 교직원공제회(4.1%)를 웃돌았다.

과기공의 자산운용 전략은 회원들의 퇴직연금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도 관심이 높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과기공의 회원은 전국 3만7600명이며 이들의 퇴직연금은 모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이다.

회원은 일반 자산운용사의 퇴직연금 펀드와 함께 공제회가 직접 운용하는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펀드를 선택할 수 있다.

과기공 관계자는 "공제회 운용 펀드를 택했다면 공제회의 자산운용전략에 따라 플러스 알파 수익률이 얹혀져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더 높은 운용수익을 추구하면서 과거보다 투명하게 자금을 운용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llegible]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기관 자금이 외부 위탁운용사를 통해 운용되면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를 극복하는 적절한 운용을 통해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3%대 위안화 예금상품 인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위안화 예금상품이 주목받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624억5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35억 달러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한 달 동안 위안화 예금은 전체 외화예금 증가액보다 많은 42억2000만 달러가 늘어났다. 잔액은 161억9000만 달러(약 17조원)로 1년 전인 지난해 7월 2억9000만 달러에 비해 약 56배 늘어났다. 위안화 예금 비중의 증가는 공상은행, 건설은행, 중국은행 등 국내에서 영업 중인 중국계 은행 국내지점이 주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위안화 예금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일부 중국계 외은지점이 3%대 후반의 고금리를 제시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반 원화예금의 경우 3%대 정기예금 상품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2%대다. 1%대 예금금리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처럼 중국계 은행과 국내 은행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자 투자자들이 중국계 외국은행 지점에 예금을 대거 늘리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5일 중국 국영은행의 신용과 연계한 시모펀드의 투자자를 모집했다가 그 투자 열기에 놀라고 말았다.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으로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접수 5분 만에 판매한도 100억원이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예금금리가 연 2% 초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기대수익률이 연 2.6%로 다소 높자 투자자들이 몰려든 것 같다"며 "해당 은행이 파산하지 않는 한 수익률이 보장돼 안정성이 높다는 것도 인기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내에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이 지정되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도 예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위안화로 예금을 넣게 되면 환율이 변동할 때 환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illegible] 기자 mine@

'문자 사과' 신기하네 27일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이색 과일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는 글자를 새겨 넣는 '문자 사과 선물 세트'를 5만 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제공

경기부양 기대에 탄력받은 소비심리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

소비심리가 정부의 경기부양 기대감에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로 7월(105)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올해 2~4월 108을 유지하다가 세월호 참사의 영향을 받은 5월에 105로 떨어졌다. 이후 6월 107로 개선되는 듯하더니 지난달 다시 105로 뒷걸음질쳤다.

CCSI란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기에 대한 소비자 기대심리가 과거 평균치(2003~2013년)에 비해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CCSI가 한 달 만에 반등한 것은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세법개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등을 속속 발표하고 한은도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발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계기로 경기 회복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경기와 6개월 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눈에 띄게 밝아졌다. 현재경기판단CSI는 이번 달 81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올랐다. 다만 세월호 사고 여파가 반영되기 전인 4월의 91보다는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illegible] 기자

학교 품은 아파트 잘나간다

자녀 등굣길 안전 찾는 맹모(孟母) 영향

#서울 상도동에 살고 있는 A씨는 초등학생인 딸이 길 건너 학교를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할 뻔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사를 고민하다 이내 포기했다. 딸이 다니는 학교와 맞닿아 있는 아파트의 전셋값이 지금 집보다 1억원 이상 비쌌다. A씨는 미분양으로 할인분양까지 했던 아파트가 초등학교 하나 생겼다고 지역에서 가장 비싼 단지로 거듭난 게 의아하기만 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학교와 단지가 인접한 아파트가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다 특히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의 경우 통학길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혁신초교나 시설이 좋은 학교 옆은 물론이고, 단순히 통학거리가 짧은 아파트를 찾는 맹모(孟母)들이 많은 상황이다.

다만 수요가 두꺼운 만큼 매매와 전세가격이 높아 요즘에는 기존 아파트 대신 신규분양 단지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올 들어 경기도 광주에서 공급된 'e편한세상 광주'와 에나 전북혁신도시에서 분양된 '중흥S-클래스'가 높은 청약률을 기록한 것도 단지 안 또는 바로 옆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부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다.

김근옥 부동산플래너 팀장은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이사를 다니는 목적이 교육·직장 등의 문제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교육여건이 좋은 단지로 사람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수요도 많은 편이라 환금성이나 투자가치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도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이 기대되는 단지들이 공급된다. 우선 롯데건설과 신동아건설은 다음달 세종시 2-2생활권 P1구역에서 교육특화 아파트 '세종 캐슬&파밀리에'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이 신설되고 중학교 2곳도 도보 거리에 들어설 계획이다. 2-2생활권 안에서도 교육여건이 가장 우수한 단지로 손꼽힌다.

같은 달 우미건설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에 선보일 '구미 확장단지 우미린 풀하우스'는 단지 내 초등학교 예정부지가 있고, 바로 옆으로는 중학교 예정부지가 있다. 또 대우건설이 10월 광명역세권지구에서 분양 예정인 '광명역 푸르지오'도 부지 앞으로 초등학교가 문을 열 계획이다.

이외 현대산업개발이 28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수원 아이파크시티 4차'는 주변으로 곡정초교, 권선중·고교가 있다. 수원시 권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수원 아이파크시티' 아파트로는 마지막 분양 물량이다.

/박선옥기자 psy1920@metroseoul.co.kr

삼성전자 '디자인·SW 루키 전시회' 27일 서울 서초사옥 ... 딜라이트에서 열린 '디자인·소프트웨어(SW) 분야 대학생 작품전시회 CDP(convergence design project)'에서 악기 연주 기능을 하는 '에어잼(Airjam)'을 만든 대학생들이 전시물을 시연하고 있다. 28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에는 자체대 디자인·소프트웨어 주 역을 꿈꾸는 대학생 11명과 14개 팀이 참가했다. /삼성전자 제공

Daum KAKAO
다음-카카오 합병 최종 확정

10월 1일 공식 출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의 합병이 최종 확정됐다.

다음과 카카오는 27일 각각 제주 다음 본사와 판교 유스페이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합병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주총을 통과하면서 양사는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10월 1일 합병법인을 공식 출범시키게 됐다. 통합법인 다음카카오가 출범하면 현재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약 4조2000억원)을 제치고 코스닥 대표 기업이 될 전망이다.

합병 후 존속법인으로 남는 다음의 사내·사외 이사도 이날 선임됐다. 새 사내이사로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이사 보수의 한도 변경도 승인됐다.

하지만 상호변경, 사업목적 추가, 의결권 없는 전환주식 등을 포함한 정관 변경 안건은 일부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합병법인 사명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다음은 사명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밟아 10월 말에 임시주총을 열고 사명을 '다음카카오'로 변경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다음의 주주총회에는 전체 발행주식 1356만2629주 가운데 58.7%가 출석해 97.5% 찬성으로 합병을 승인했다. 카카오 주주총회에는 전체 발행주식 2764만3880주 가운데 78.2%가 출석, 만장일치로 합병을 승인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동탄2신도시 첫 공공분양 아파트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신도시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첫날인 27일 오전 동탄역 청계리에 마련된 전시관에 시민들이 찾아들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연휴 평균 4.3일… 상여금은 93만원

올해 추석연휴는?

- 추석연휴 일수 4.3일(작년 4.4일)
- 추석상여금
  - 지급기업비율 75.0%(작년 75.9%)
  - 지급액 평균 93.2만원(작년 91.3만원)

올해 추석연휴는 평균 4.3일이고, 상여금은 93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직무대행 김영배)가 전국 5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추석연휴는 4.3일로 작년(4.4일)보다 0.1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추석연휴는 일요일과 겹쳤지만 토요일과 대체공휴일 등을 활용하며 대부분의 기업이 4일 이상 쉬어 주일과 이어진 작년 추석에 비해 휴무일수가 0.1일 감소하는데 그쳤다.

세부적으로 5일 이상 쉬는 기업은 45.7%인 반면, 3일 이하 쉬는 기업은 18.5%로 조사됐다. 특히 추석 연휴와 주말이 이어졌던 지난해에 비해 5일을 쉬는 기업이 감소(57.5% → 37.0%)했지만, 4일 쉬는 기업은 크게 증가(6.3% → 35.8%)했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4.8일, 중소기업 4.1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0.7일 긴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70.3%가 5일 이상 휴무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5일 이상 휴무가 35.6%에 그쳤다.

대체공휴일인 9월10일 휴무하는 기업은 전체 응답기업의 70.5%로, 대기업은 89.2%, 중소기업은 62.8%가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상여금은 93만2000원(작년 91만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대기업의 지급액이 117만2000원으로 작년(113만6000원)에 비해 3만6000원(3.2%)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86만4000원으로 작년(84만6000원) 대비 1만8000원(2.1%) 증가했다.

/김태균기자 ksk@

고가아파트 낙찰가율 85%

수도권 5년 만에 최고

각종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6억원 초과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도 약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지역 고급아파트의 고가 낙찰이 속출하면서 서초구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100%를 돌파했다.

27일 법원경매전문회사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26일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은 평균 86.9%를 기록했다. 2009년 9월(90%)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가운데 6억원 초과 고가아파트의 낙찰가율은 전달(81.6%)보다 3.5%포인트 상승한 85.1%로, 2009년 9월(88.6%)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LTV 완화로 6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가능금액이 6억원 이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실제 이달 6억원 이하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87.5%로 7월(86.8%)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6억원 초과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에서는 고가 낙찰이 속출하면서 낙찰가율도 초강세다. 서초구 아파트의 8월 평균 낙찰가율은 101.9%로, 이달 낙찰된 아파트 5가구 모두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 강남구도 평균 낙찰가율이 91.6%를 기록하며 90%를 넘겼다.

반면 '2싱크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송파구는 8월 낙찰가율이 81.1%로 지난달(83.9%)보다 떨어져 눈길을 끌었다. /박선옥기자

100억 벌어 80억 배당 '펑펑'

외국계 기업 국내 투자는 '찔끔' 논란

한국지엠, 소니코리아 등 국내에서 매출 1조원 이상을 올리는 외국계 기업 28곳이 지난 3년간 국내에서 벌어들인 순이익의 80%나 배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외국계 기업에 대해 제기되는 '단물 빼먹기', 국부 유출 등의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27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2013년 기준 매출 1조원 이상의 외국계 투자기업 28곳의 실적, 고용, 투자, 배당성향을 조사한 결과 3년간 302조5000억원 매출에 12조6000억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익률이 4.2%인 셈으로, 이들은 3년간 순이익 중 10조890억원을 배당해 80.3%의 누적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특히 순이익이 2011년 5조3000억원에서 2013년 3조3000억원으로 2조원 줄었지만, 배당금은 3조3000억원에서 4조3500억 원으로 1조원 이상 늘려 대조를 이뤘다.

실제 지난해만 놓고 보면 순이익보다 1조원 이상 많은 배당을 실시해 131%의 배당성향을 보였다. 이는 국내 10대 그룹의 2013년도 배당성향인 26.7%와 비교했을 때 5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지난 3년간 누적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지엠으로 274.5%나 됐다. 한국지엠은 2012년 1000억원의 적자를 낸 뒤에 누적 순이익이 1200억원에 그쳤지만, 배당액은 2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는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2011년 배당액이 1700억원으로 136%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소니코리아는 2006년 이후 배당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순이익의 1255%에 달하는 배당을 실시해 3년 누적 배당성향 272.7%로 2위에 올랐다. 삼성에서 분리된 코닝정밀소재는 순이익 4조4500억원의 152.5%인 6조8000억원을 배당해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국바스프(90.9%), 한국델파이(89.2%), 노벨리스코리아(86.1%), 한국IBM(80.4%) 등이 80% 이상의 배당성향을 기록했다. 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67.4%)과 동우화인켐(61.1%), 한국쓰리엠(49.8%) 등이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배당하며 '톱 10'을 차지했다.

매출 1조원 이상 외국계 기업의 직원수는 2011년 8만7018명에서 이듬해 8만4646명으로 줄었고, 2013년 다시 8만3645명으로 감소했다. 3년간 감소율은 3.9%였다.

같은 기간 10대 그룹 직원 수가 84만9019명에서 91만221명으로 36.9% 증가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투자도 고용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조6200억원에서 2012년에는 2조9400억원으로 18.8%가 줄었고, 2013년 다시 2조2600억원으로 23.1%나 급감해 3년새 37.6%가 쪼그라들었다.

/유재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 사장(왼쪽서 두번째), 박재유 LG전자 HA개발연구소 전무(왼쪽서 세 번째)가 2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 프리미엄 가전 미디어 브리핑' 행사에서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LG 코드제로'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2015년 가전시장 1등 목표"

LG전자 프리미엄 'LG 코드제로' 발표

"내년까지 가전시장 글로벌 1등 목표에 변함 없다."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사장은 27일 하반기 프리미엄 가전 미디어브리핑 행사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분야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그동안 부족했던 쿠킹, 빌트인, 청소기 등 사업 역량을 보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사장은 "가전시장은 전체적으로 올해 3% 내외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LG전자는 그 이상 성장하고 있다"며 "특히 청소기의 경우 우리가 모터, 배터리 등 기술력을 갖춘 만큼 빠른 시일내에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LG전자는 이날 행사에서 프리미엄 청소기 통합 브랜드인 'LG 코드제로(Cord Zero)'를 공식 발표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코드리스 청소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진공 청소기, 핸디스틱 청소기, 침구 청소기, 로봇 청소기 등 전 제품군에 무선 기술을 연계 최초로 완성한 것이다.

조 사장은 "과거 일부 회사들이 제대로된 성능을 갖추지 못한 채 코드리스 청소기에 뛰어들어 실패를 맛봤다"며 "반면 우리가 이번에 선보인 코드제로 제품들은 기존 유선 청소기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흡입력과 배터리를 자랑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LG전자는 무선 청소기를 위해 세탁기의 다이렉트 드라이브(DD) 모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인버터 모터를 독자 개발했다. 최대 출력 80V를 구현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위버은 LG화학의 권기사 배터리 기술을 채택한 것이다.

이밖에 프리미엄 주방가전 패키지브랜드인 'LG스튜디오'도 내년부터 유럽 시장에 확대 적용해 유럽 빌트인 가전 시장에 본격 진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LG전자는 다음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IFA 2014에서 선보일 고효율 냉장고, 세탁기 전략 모델도 함께 공개했다.

/서하늘기자 [illegible]

삼성전자 '3차원 TSV D램 모듈' 양산 삼성전자 모델이 'TSV 기반 64GB DDR4 서버용 D램 모듈'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업계 최초로 3차원 TSV(실리콘 관통전극) 적층 기술을 적용한 64기가바이트(GB) DDR4(더블데이터레이트4) 서버용 D램 모듈을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 제공

롯데그룹 417개로 최다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가 전체 대기업집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순환출자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체 대기업집단 63개 중 7월 현재 순환출자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14개다.

14개는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진, KT, 금호아시아나, 대림, 현대, 현대백화점, 영풍, 한라, 현대산업개발, 한솔이다.

올해 순환출자 기업집단(14개) 수는 작년보다 1개 감소했다. 동부는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했고, 동양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KT는 새로 편입됐다.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는 483개다. 이중 롯데가 417개로 86.3%를 차지했고 삼성 14개, 현대·한솔 각각 9개, 한진 8개 등이 뒤를 이었다.

483개 순환출자 고리 내에 포함된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수는 83개로 전체(1675개)의 4.7%다. 483개 중 출자비율이 1% 이상인 순환출자 고리는 350개다.

순환출자 고리 수는 작년(9만7658개)보다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로 도입된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가 올해 7월25일부터 시행되면서 상당수 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자발적으로 해소한 데 따른 것이다.

/세종=[illegible]기자

비즈던스 호텔 락희, 광양점 분양

비즈니스와 레지던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던스 호텔 '락희(樂喜)' 광양점이 분양된다.

지하 1층, 지상 15층, 225실 규모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이 풍부한 비즈니스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 호텔 저층부에는 레스토랑, 피트니스, 사우나, 스카이라운지, 업무휴게시설 등의 실용적인 편의공간과 부대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형 호텔은 상가, 오피스텔이 주를 이루던 수익형 부동산시장에서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투자 상품이다. 건물 운영과 브랜드 관리를 전문기업이 통합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다른 수익형부동산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상가, 오피스텔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공실과 건물 관리 문제가 호텔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전체 수익금을 배분해 분양자들에게 매월 월세형식으로 입금해주기 때문에 안정성도 높은 편이다.

다만 운영기업의 전문성과 운영실적은 꼭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호텔 락희는 분양형 호텔 개념이 등장한 초기에 대전점을 공급했다. 잔금 납부와 동시에 전문운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공실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10년, 연 9%(실투자금 기준) 이상을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광양점에 이어 청주·대덕테크노밸리·창원·당진·군산점 등이 순차적으로 오픈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061-794-3113

호텔 락희 광양점 조감도.

/[illegible]기자

커플 되려면 고양이 키워라?

글로벌 이코노미
/조선미기자 seonmi@

세계 최대 데이트 웹사이트 'POF', 회원 성격·취향 분석 연인 추천

솔로들을 위한 '온라인 어장'을 만들어 대박을 터뜨린 사람이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데이트 업체 'POF'의 마커스 프라인드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회사 이름은 '바다의 물고기 만큼이나 남녀 솔로가 많다'는 뜻의 영어 표현(Plenty Of Fish, POF)에서 따왔다.

프라인드 대표는 "남녀 회원들이 남긴 글과 대화 내용을 분석하면 어떤 사람들이 연인으로 맺어질지 70%가량 맞출 수 있다"고 최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알쏭달쏭한 사랑의 의미를 과학적인 통계로 풀어 성공가도를 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남성 회원 중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보다 커플이 될 확률이 약 32% 높다. 고양이를 키우는 여성의 경우는 커플 성사 확률이 42%까지 올라간다. 또 자기 소개서에 460자 이상 쓰는 남성, 650자 이상 쓰는 여성은 웹사이트에 짧은 자기 소개 글을 남긴 사람보다 연인을 찾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OF는 남녀 회원들이 주고 받은 엄청난 양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분석해 데이터로 만들었다. 이른바 '러브 빅데이터'다. 이 데이터로 남녀의 성격과 취향을 파악해 연인 후보를 추천, 상당수의 커플을 탄생시켰다. 프라인드 대표는 "세계 각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100만 명 중 절반 이상은 우리 웹사이트 회원의 자녀일 것"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프라인드 대표는 2003년 캐나다에서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원래 사업은 할 생각은 없었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그는 이력서에 경력을 한 줄 추가할 생각으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이트에 대한 청춘남녀의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비즈니스에 뛰어들었다. 현재 POF의 전 세계 회원 수는 7000만 여명이다.

온라인 데이트 시장은 그 어떤 분야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POF는 매월 30억 건이 넘는 페이지뷰를 기록하며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POF가 업계에서 첫 손에 꼽히는 기업으로 성장한 가장 큰 이유는 무료 회원가입 정책 때문이다. 회원 가입은 물론 기본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덕분에 POF는 단시간에 엄청난 수의 회원을 끌어 모았다. 또 많은 데이트 업체가 회원 가입비와 구독료 등으로 수익을 낸 반면 POF는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창출했다.

프라인드 대표가 무료로 회원을 유지한 이유는 비용 처리 소프트웨어 등을 넣지 않고 웹사이트를 단순하게 만들어 혼자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애당초 사업에 관심이 없었던 만큼 그는 웹사이트를 열고 5년간 혼자 일했다. 물론 지금은 60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프리미엄 유료 서비스도 시작했고 회원 수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었다.

프라인드 대표는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일에 얽매이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대한 적게 일하고 여가 생활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다. 그는 POF 웹사이트를 만든 직후 1년 동안 28개 나라를 여행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데이트 업체를 운영하는 지금도 그는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온라인 중매쟁이 프라인드 대표의 자산은 약 2억 달러(약 2041억원)로 추산된다.

대만 스쿠터 출근족 '인산인해' 27일 오전 대만 타이베이시의 다리 위에 스쿠터 행렬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상당수 타이베이서 시민은 스쿠터로 출퇴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영화 '그래비티' 같은 재난 막자

록히드마틴, 우주쓰레기 청소 추진

영화 '그래비티'와 같은 재난을 막기 위해 지구 궤도에 떠도는 우주쓰레기를 청소한다.

F16, F35 등 전투기 생산업체로 유명한 미국 록히드마틴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호주 기술기업인 EOS와 서호주에 새로운 우주쓰레기 추적기지를 설립하고 관련 전문기술을 공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설명이다. 두 회사가 공동 운영하게 될 서호주 추적기지는 광학시스템과 레이저 기술을 이용해 궤도를 도는 가장 위험한 우주쓰레기들을 감시하게 된다.

앞서 록히드마틴은 미 공군으로부터 '우주 담장'(space fence)으로 불리는 레이더 시스템 구축 계약을 9억1500만 달러(약 9367억 원)에 따내기도 했다. 이 레이더 시스템은 태평양 중서부 마셜제도의 기지에서 지구 궤도에 떠다니는 20여 만개의 우주쓰레기들을 추적하게 된다.

한편 우주쓰레기 문제는 지난해 샌드라 불럭과 조지 클루니가 주연한 할리우드 영화 '그래비티'의 소재가 되면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나사와 미 국방부는 구슬 혹은 그보다 큰 크기의 우주쓰레기 약 50만 개가 총알보다 빠른 최고 시속 1만7500마일의 속도로 궤도를 도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갤럭시 제친 샤오미, TV시장도 위협

60만원대 UHD 주목

'중국의 애플'로 불리며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샤오미가 TV시장까지 위협하고 있다.

27일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는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이 기존 중국 TV 제조업체보다 30% 싼 가격으로 전자유통(e-커머스) 채널을 통해 자국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샤오미의 49인치 UHD(초고해상도) TV 가격은 3999위안(약 66만원)이다. 이는 비슷한 크기 삼성·LG UHD TV의 가격이 290만대인 것을 감안하면 4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같은 저렴한 가격은 '차이완(차이나+타이완) 시스템'의 힘이라고 디스플레이서치는 평가했다. 샤오미는 대만 협력사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49인치 UHD TV를 제조하고 있다.

디스플레이서치는 "샤오미가 '애플 짝퉁' 이미지를 극복한 뒤 급격하게 점유율을 끌어 삼성 갤럭시를 제치고 중국 시장점유율 1위에 오른 전략으로 TV시장도 공략하고 있다"며 "기존 TV 브랜드는 샤오미라는 파괴적인 경쟁자를 만났다"고 평가했다. /이국현기자

구글 글로벌 창업기지로 한국 선택

'캠퍼스 서울' 내년 설립 지원 '런던' 274개 기업·570억 유치

구글이 한국의 창업자를 위해 특별한 공간을 마련한다.

전 세계에서 세번째로 캠퍼스를 설립해 국내 창업자에게 글로벌 네트워킹과 전 세계로 나갈 기회를 지원하고 구글 직원의 멘토링과 뛰어난 기술 인프라를 제공한다.

아울러 엄마를 위한 캠퍼스, 캠퍼스 EDU, 테크토크 등 다양하고 특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캠퍼스는 구글이 창업가를 위해 만든 공간으로 한국의 경우 '캠퍼스 서울'로 명명되며 내년 개관 예정이다.

구글은 27일 서울 대치동 오토웨이타워에 위치한 캠퍼스 서울 설립 예정 공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캠퍼스 서울은 아시아 지역 최초의 캠퍼스다. 구글이 2012년 만든 첫 캠퍼스인 '캠퍼스 런던'과 비슷한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캠퍼스 서울은 전세계 수십 개의 스타트업 커뮤니티로 구성된 '구글 창업지원팀 네트워크'에 합류하며 국내 창업가들은 전세계 주요 스타트업 허브와 교류하고 다른 나라 캠퍼스와의 교환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송은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선다 피차이 구글 수석 부사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브리짓 빔 구글 창업지원팀 수석 매니저, 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왼쪽부터)이 모바일 고사상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구글 제공

캠퍼스 런던, 캠퍼스 텔아비브와 마찬가지로 캠퍼스 서울의 가장 큰 목적은 활발한 스타트업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일례로 캠퍼스 런던은 개관 후 1년간 7만 명 이상에게 다양한 행사와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274개 스타트업이 3400만 파운드(약 57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캠퍼스 서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한 구글의 지속적인 투자의 일환이다.

구글은 2011년부터 구글 창업지원팀을 통해 코리아 고 글로벌 활동을 추진해왔으며 글로벌K-스타트업, K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브리짓 빔 구글 창업지원팀 파트너십·프로그램 수석 매니저는 "캠퍼스 서울 설립은 한국의 미래에 투자하려는 구글의 지속적인 노력 중 하나다. 특히 스타트업 커뮤니티의 빠른 성장, 개발자 인력의 뛰어난 경쟁력, 모바일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력, 사물인터넷 분야 혁신 등에 있어 서울은 구글 캠퍼스 위치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루 빨리 한국 창업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스타트업 공동체를 지원하고 한국 창업가들의 성공을 돕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zen@metroseoul.co.kr

고성능 미러리스 카메라 A5100 소니코리아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 그랑서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전 조고환식 미러리스 카메라 신제품 A5100을 국내 첫 공개하고 있다. A5100은 243만 화소의 DSLR과 동일한 대형 이미지 센서(APS-C)와 0.07초의 초고속 하이브리드 AF를 탑재해 성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렌즈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다. / 손진영기자 son@

서든어택 스마트폰서 즐긴다

넥스지티 모바일게임 2종 출시

PC방에서 느꼈던 '총쏘는 맛'을 스마트폰에서도 만끽한다.

서든어택 (사진) 개발사 넥스지티가 모바일 게임 신작 2종을 27일 공개하고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넥스지티는 이날 신작 모바일 게임 '서든어택M: 듀얼리그'와 '슈퍼 판타지 워'를 공개했다.

27일 비공개 시범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서든어택M: 듀얼리그는 3대 3 실시간 대전이 가능한 본격 모바일 FPS 게임이다.

조준과 발사에 집중하고 전후이동을 빼는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한 UX(User Experience)로 재빠른 게임의 긴장감과 재미를 극대화했다.

특히 하나의 버튼으로 조준하고 쏘는 독특한 조작법으로 FPS 게임의 '손맛'을 살렸다.

기존 FPS 게임의 다소 어두운 그래픽을 벗어나 캐주얼한 카툰풍의 밝은 그래픽을 채택했다. 네트워크로 함께 플레이 하는 재미를 줄 수 있는 매칭 시스템도 준비돼 있다.

시뮬레이션 RPG '슈퍼 판타지 워'는 다양한 전략 요소를 활용해 성장하고 도전하는 게 특징이다. 탄탄 한판 플레이 하는 재미를 최대한 살리면서 조작과 전투방식, 플레이 시간 등을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했다.

탄탄한 시나리오와 연출, 스토리로 몰입감을 높였으며 12개 지역 150여개 던전과 다양한 미션, 도전과제 등 풍부한 컨텐츠를 자랑한다.

넥스지티 김정준 대표는 "꾸준히 성장해온 넥스지티는 특히 최근에 합병, 사명 변경, 우수 개발인력 확충 등 한층 더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모바일 게임을 하나씩 선보이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고 밝혔다.

/박상훈기자

30년 앙숙 스티브 잡스·빌 게이츠

IT도 인문학이다 /박상훈기자

구글과 아마존 바통?

하늘에 두 태양이 뜰 수 없다고 하지만 예외도 있다.

고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와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만 봐도 그렇다.

1955년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2011년 10월5일 잡스가 사망하기까지 약 30년을 라이벌이자 앙숙으로 지내왔다.

세기의 천재로 통하는 이들은 20대 시절부터 서로를 잘 알았지만 사이는 좋지 않았다.

발단은 게이츠가 만든 윈도 1.0이다. 이 소프트웨어를 본 잡스는 "매킨토시를 베꼈잖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게이츠를) 파괴해줬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 말을 들은 게이츠는 "잡스 당신이 만든 매킨토시 역시 제록스의 아이디어를 훔친거잖아!"라고 응수했다.

30대였던 90년대, 잡스는 월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게이츠와 자신의 경영철학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무덤 속 부자는 의미가 없다. 나는 무덤이 아닌 침대에 누우며 오늘도 멋진 하루를 살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게이츠를 '무덤 속 부자'라고 비하했다.

다혈질인 잡스의 독설은 계속된다. 그는 희대의 성공작 '윈도95'가 처음 나왔을 때도 "식견이 없다. 성공 여부를 떠나 사람들이 쓰레기 제품을 산다는 것에 화가 난다"고 내뱉었다.

2011년 잡스가 사망하자 게이츠는 "그와 함께 동시대를 살았다는 자체가 영광이다. 잡스가 그리울 것"이라고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이 남아있던 잡스에 대한 미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게이츠는 지난해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애플 아이패드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에 "나쁘지 않다. 예쁘지 않은가. 잡스는 다른건 몰라도 디자인을 잘한다"고 짧게 말했다.

즉 제품의 성능이나 창의성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예쁜 물건을 잘 만든다'는 식으로 잡스를 우회적으로 낮췄다.

2014년 8월 현재 하늘에는 몇 개의 태양이 떠있을까.

세간의 관심도를 보면 구글의 래리 페이지·세르게이 브린 공동 창업자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창업자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모양새다.

지난 26일 아마존은 비디오게임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를 약 1조원에 인수했다.

트위치는 '롤'과 같은 인기 게임 플레이 장면이나 게이머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한마디로 게임에 특화된 유튜브다.

사실 트위치는 구글이 노리고 있던 시냥감이었다. 구글과 트위치는 올해 내내 인수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다.

구글 역시 트위치와 유튜브를 결합하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동영상을 서비스하는 일에서 통합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베조스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잽싸게 구글에 고춧가루를 뿌렸다.

페이지·브린과 베조스도 잡스와 게이츠처럼 장기간 티격태격할 수 있을까.

호텔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추석연휴~

다양한 혜택 제공하는 패키지 잇따라 선봬

특급호텔들이 추석연휴 동안 도심 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추석 패키지를 선보인다. 여유를 즐기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호텔에서 색다른 추석을 만나보자.

먼저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사진)는 편안한 휴식과 특급 호텔 셰프가 준비한 미식의 향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오감만족 추석 패키지'를 준비했다.

또 더 플라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호텔을 이용하면서 덕수궁에서 추석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유만만(餘裕滿滿)' 패키지를, 롯데호텔서울은 명절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추석 휴(休) 패키지'를 각각 마련했다. 롯데호텔월드(잠실)의 추석 패키지 3종도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센트럴시티에서 논스톱 쇼핑이 가능한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스파 트리트먼트로 피로를 풀기 좋은 '추석 선물 패키지'를 선보이며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명절증후군을 해소하고 달콤한 휴식을 만끽할 수 있는 'IP 추석 패키지'를 출시했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수영장과 피트니스 클럽 등에서 좋은 연휴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저스트 휴(休) 패키지'를,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실속 있는 가격에 알찬 휴식이 가능한 '어나더 추석 패키지'를 내놓았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연휴가 좋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추(秋)사랑 패키지'로 고객 맞이를 하고 있으며 세종호텔은 추석을 맞아 고생한 아내들을 위한 '한가위 패키지'를 기획했다.

메이필드 호텔은 한가위의 흥을 더해줄 민속놀이 체험과 퓨전국악 공연이 포함된 추석패키지 '도란도란'을 진행하며 버뮤아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 호텔은 싱글족을 위한 다양한 추석 패키지를 제공한다.

그랜드 힐튼 서울은 추석 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한가위 패키지'를 세 가지로 구성했다. 하얏트 리젠시 인천은 온 가족이 함께 업그레이드된 호텔을 경험할 수 있는 '그랜드 뉴 추석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서울팔래스호텔은 안락한 객실에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내려 놓고 나른함을 만끽할 수 있는 한가위의 호사를 선물한다.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는 재충전의 시간을 위한 다양한 '추석 휴 패키지'를 만날 수 있다.

더 클래식 500 펜타즈 호텔은 추석연휴를 호텔 스파에서 힐링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헬리베드 스파 패키지'를, The-K호텔서울은 한가위 패키지 '해피니스'인 볼룸을 통해 한가위의 마음을 담았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손진영기자

한일축제한마당 10주년 포스터 공모전 전시

'축제 10년, 꿈을 싣고' 주제로… 내달 5일까지 무료 관람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회는 올해 행사 10주년을 맞아 지난 26일부터 '포스터 공모전 2014'를 개최해 관심을 끈다.

9월 5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 갤러리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일축제한마당 운영위원회가 주최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올해 행사 테마인 '축제 10년 꿈을 싣고'를 주제로 그동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작품 가운데 25점을 선정해 선보이고 있다.

전시된 작품들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들이 한일관계의 개선과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내용을 담아 제작한 것이다. 지난 겨울 인기를 끌었던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가 '렛잇고(Let it go)'를 패러디 하거나 초콜릿과 바닐라맛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한일 관계를 빗대는 등 재치있는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또 공식 포스터 못지 않은 수준 높은 작품들도 전시된다.

관람을 원하는 시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를 참고하면 된다.

한일축제한마당 포스터 공모전 우수 공모작들

한편 한국과 일본에서 매년 열리는 최대 한일문화교류행사 '한일축제한마당 2014 in Seoul'은 9월 14일 코엑스 전시장 C홀에서 개최된다. 이 축제는 2005년 9월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우정의 해'에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다.

문의 02-765-3011(내선110)

/정혜인기자 hyejung0404@

외항사 타고 편안한 해외여행을~

추석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외항사들이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인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사진)은 기내 입국 서비스(IOB)를 시행하고 있다. 자카르타 운항 편에 이민국 직원이 탑승해 기내에서 입국 심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도착 후 5분 이내에 공항 출구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에미레이트항공은 유아를 동반한 가족 승객을 위해 유모자를 대여해주는 동시에 요람을 제공하고 있다. 만 2세 미만의 유아 좌석을 예매하면 성인 운임의 35%만이 부과돼 타 항공사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캐세이패시픽항공은 거동이 불편한 고객들을 배려해 접이식 휠체어의 기내 보관 장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 보조기기 1개와 아동 보조기구 2개를 무료 수화물로 처리하고 있다. /황재용기자

뉴스&뉴스

'한국 취항 30주년 기념 특가' 실시

●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이 오는 31일까지 '한국 취항 30주년 기념 특가'를 실시한다.

유럽 주요 도시 왕복 항공권을 구매하면 특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항공권 가격은 이코노미 클래스(세금·수수료 포함)를 기준으로 100만3000원부터다. 또 여행 가능 기간은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이며 오는 12월 한국에 우선 도입되는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도 특가로 이용 가능하다.

비발디파크 스키월드, 시즌권 특가 판매

●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스키월드가 2014~2015 시즌 스키월드 시즌권 판매를 시작한다.

다음달 5일까지는 특가 판매가 이뤄지고 이후 단계적으로 가격이 변동된다. 특가 판매 가격은 전일권 25만원이다.

시즌권 구매 혜택도 제공한다. ▲수중 객실 우대권 ▲오션월드 균일가 1만원 모바일 쿠폰 ▲리프트 & 렌탈 패키지 50% 할인 ▲오션월드 눈썰매장 40% 할인 등이다. 시즌권 재구매자에게는 오션월드 무료 입장권 1매가 주어진다.

특가 판매 후 시즌권은 정상 판매가를 기준으로 ▲전일권 36만원 ▲프리미엄 평일권 28만원 ▲평일 야간권 23만원 ▲새벽권 14만원 등이다.

건강재료 활용 제품 출시 '붐'

현대식으로 재해석 입맛 사로잡기 나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식·음료업계가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산삼·홍삼·생강 등 건강한 전통재료를 활용한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커피전문점 드롭탑은 최근 산삼을 이용한 프리미엄 눈꽃빙수인 '산삼 아이스탑'을 출시했다. 산삼 배양근을 갈아 만든 눈꽃빙수에 콩가루를 뿌리고 꿀과 산삼생재를 토핑해 만들어 어린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다. 또 6년근 홍삼에 꿀을 혼합해 홍삼 특유의 쓴 맛을 경감시킨 '아이스티 홍삼' 제품도 선보였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생강을 활용한 '진로믹서 진저에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강의 깊은 풍미와 탄산의 청량감을 담은 믹서류로 제품 그대로 마셔도 맛있지만 소주·와인·위스키·브랜디 등의 알코올 음료와 섞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모가디'는 오미자를 이용한 '석류오미자차'를 판매하고 있다. 오미자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은 전통재료로 석류와 잘 어우러져 달콤하게 즐길 수 있다. /정태림기자

'빅데이터'로 소비자 잡아라

다양한 니즈 충족 위해 구매 데이터 분석

편의점이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편의점에서는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계산 전에 직원이 고객의 성별과 연령을 입력하도록 돼 있다. 업계는 이렇게 입력된 정보를 수년간 축적하고 현장에서의 구매 패턴을 모니터링 해 그 분석 결과를 제품 개발에 반영한다.

최근 CU가 20~30대 성인 여성을 위해 출시한 'CU Big 요구르트'(사진)도 이런 제품의 일종이다. 이 제품은 BGF리테일이 지난 3년간의 요구르트 구매층을 확인하고 20~30대 젊은 여성의 구매 비중이 30%를 넘었으며 이들이 너무 강한 단맛에는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를 토대로 개발됐다.

구매 현장 모니터링에서는 젊은 여성 고객층이 60㎖ 정도의 소용량 요구르트를 여러 개 구매해 한꺼번에 마시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관련 데이터들을 종합해 용량을 소규격 요구르트의 4.5가 수준인 270㎖으로 대폭 늘렸으며 단맛이 강한 합성감미료 대신에 천연 레몬 과즙을 사용해 청량감을 높이고 깔끔한 뒷맛이 나도록 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삼각김밥과 주먹밥 같은 소량 푸드 상품을 중심으로 여성의 영향력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지난 6월 컵 형태의 '먹는 주먹밥'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업계에 따르면 연도별 푸드 상품 매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현재까지 전체 푸드 상품의 남녀 매출 비중은 약 67대 33으로 여전히 남성이 우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삼각김밥의 여성 매출 비중은 2012년 34.9%, 그리고 지난해 36.4%를 넘어 올해는 37.2%까지 올라섰다. 올해 삼각김밥 매출은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 12.7% 증가했는데 여성이 18.3% 오르며 남성(9.7%)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에 여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보다 깔끔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가잔히 주먹밥을 작은 용기에 스푼과 함께 담았다.

GS25도 판매 데이터를 다양한 각도로 분석해 상품 개발에 적용한다. GS25는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매운 맛 상품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데이터를 통해 '불닭비빔밥'과 '화끈치즈불닭볶음밥' 맛의 삼각김밥 2종을 여름 한정상품으로 출시했다.

/정백민기자 hlsna0404@metroseoul.co.kr

韓 스타벅스 커피값 美의 2배

OECD 중 6번째 비싸

지난달 가격을 올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잔 가격은 톨사이즈 기준으로 4100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0개국 중 6번째로 비싼 가격이다.

현대경제연구원과 코트라 등이 OECD 20개국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가격을 각국 물가 수준을 감안한 구매력평가(PPP)로 환산해 비교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당 제품의 PPP 환산 가격은 4.85 달러로 미국(2.45 달러)보다 약 2배 높았다.

하지만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가격은 한국의 다른 브랜드 커피 전문점과 비교했을 때 크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커피 전문점 중 콩빈앤티(커피빈앤티)·엔제리너스 아티제 등이 스타벅스보다 비쌌고, 투썸플레이스·탐앤탐스·할리스 등은 조금 싸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세계 시장과 비교했을 때 국내 커피 값들이 전반적으로 비싸게 팔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한국 매장의 경우 규모가 크고 핵심 상권에 자리한 경우가 많아 비싼 임대료가 반영된 결과라고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테이크아웃 고객보다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는 고객이 많은 점 등 국내 시장의 특성에 있기 때문에 단순 가격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장 규모와 위치에 따른 임대료나 관리비·인건비·고객 회전율 등이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스타벅스는 글로벌 베사라 각 나라 사정을 고려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23개 주력 제품의 가격을 평균 2.1% 인상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지난달 21일 "스타벅스의 재무제표상에서 영업이익은 2012년보다 2013년에 약 162억원 증가했지만 이는 매장 수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동일 기간 매출액은 약 912억원이 증가해 매출대비 비중으로 보면 오히려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철기자 kimc0604@

당분·칼로리 줄인 음료 관심

업계, 신제품 리뉴얼 제품 잇따라 출시

최근 '달달한 음료 대신 담백한' 제품을 찾고 선택해 고칼로리에 대한 걱정없이 즐기려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관련 업계도 저당·저칼로리를 표방한 '라이트(Light)'드링크 음료를 잇따라 선보여 관심을 끈다.

네슬레의 '블루레모네이드'(사진)는 국내 최초 파우더 제품이다. 기존의 자사의 레모네이드보다 설탕은 20%가 줄었지만 200㎖ 1잔에는 비타민C 하루 권장량 100%가 함유됐다. 블루 색상은 '스피룰리나'라는 해조류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청색소로 만들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다.

농심은 어린이음료 '카프리썬'의 당 함량을 기존 대비 평균 36% 정도로 대폭 줄인 리뉴얼 제품을 선보였다. 1개의 제품의 당 함량은 100㎖당 15g 이하로 줄여 열량도 92㎉에서 현재 60㎉로 35% 가량 감소됐다. 달콤하고 향긋한 과일 주스맛을 살리기 위해 꿀대신 원산지인 스테비아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천연 감미료를 사용했다.

매일유업의 '플로리다 내추럴 자몽주스'는 100% 착즙주스다. 자몽은 풍부한 식이섬유와 쌉쌀한 맛을 내는 '나린진(Naringin)' 성분이 몸 속의 불필요한 지방을 연소시켜 몸매관리에 도움을 준다.

지난 7월 코카콜라가 출시한 '글라소 코코워터'는 달달한 향 때문에 당분이 높을 것 같지만 250㎖당 40㎉로 저칼로리 음료다.

/정영일기자 jy0ng@

강강술래, 덥고 이른 추석 신선배송 총력

3중·MAP포장법 도입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예년보다 덥고 이른 추석을 앞두고 육류의 신선도를 높여 택송사고를 줄이기 위한 3종 포장법을 도입해 주목 받고 있다.

우선 열전도율이 낮아 보냉효과가 우수한 고급원단과 이전보다 두툼한 단일재를 사용한 보냉가방으로 외부의 열을 이중으로 차단한다. 여기에 아이스팩(냉매제)의 냉을 오래 유지시키는 3중 포장으로 변질의 위험을 줄였다.

또 프리미엄세트에는 진공포장보다 3일 가량 더 선도를 유지해 주는 'MAP(가스치환) 포장'을 도입했다. 이 포장법은 포장 속 공기를 모두 없애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등을 적당한 비율로 섞어 다시 넣는 방식으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한다.

이와 함께 강강술래는 전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 일부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 중이다. 한우불고기1호(1kg) 5만원, 한우불고기2호(1.5kg) 7만원, 강강양념1호(16대) 9만원, 강강실속2호(강강양념8대+한우불고기1kg) 9만원 등 매장 인기메뉴를 할인된 가격에 제공한다.

한우실속2호(한우양념2대+한우불고기1kg) 13만원와 한우정성1호(국거리+불고기+등심-각0.7kg+15만원), 한우찜갈비세트1호(3.2kg 18만원) 등 한우프리미엄 세트도 특가에 구매 가능하다.

기업 단체선물로 인기가 높은 100% 한우로 우려낸 한우사골곰탕 대용량 세트(800㎖ 9팩 18인분)는 3만9800원, 소용량 세트(350㎖ 5팩+10인분)는 2만2500원, 방부제·조미료 방색제를 넣지 않은 갈비맛쇠고기육포세트(12봉)도 5만1600원에 선보인다.

/정백민기자

DRAMAcube

매주 토요일 밤 12시

[셜록] 마틴 프리먼 주연

tcast

더페이스샵, 50~20% 할인

추석 선물세트 30%, 클렌징 전품목 50%↓

자연주의 화장품 '더페이스샵'이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열흘간 최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더페이스샵 전국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구매고객은 품목별로 50~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추석을 맞이해 구성된 스페셜 선물세트에 30%의 할인율을 적용해 명절 선물을 준비하려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강화했다.

대표적인 추석 선물세트 중 하나인 '명인 미인도 천삼송이 2종 스페셜 세트'는 1등급 6년근 홍삼과 자연산 송이 등 프리미엄 원료를 담은 한방 주름개선 기능성 스킨과 로션 세트다. 엄선된 한방 약재를 9번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원료의 미용 효과를 극대화한 '구증구포 포제법'을 거친 7가지 한방원료 복합물을 함유했다. 또 1등급 6년근 홍삼, 자연산 송이버섯을 함유해 푸석해진 피부에 적극적으로 영양을 공급한다.

20~30대 여성을 위한 베스트셀러 '망고 씨드 하트볼륨 버터 기획 세트' 및 남성을 위한 '명인 미인도 천삼송이 포맨 탄력 2종 세트' 등의 추석 선물세트도 30% 할인한다.

이 외에도 환절기 필수품인 클렌징 전품목, 건조한 피부에 풍부한 영양을 주는 '스팀 발효원액 에센스 대용량' 등에 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한편 더페이스샵은 28일부터 한 달간 3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100% 당첨되는 스크래치 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함께 벌인다. 1등 50명에게 100만원 어치 상품권을 제공하며 2등 300명에 더페이스샵 30만 포인트를, 3등 500명에 10만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그 외 모든 스크래치 쿠폰 고객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경품수령에 따른 제세공과금(22%)은 더페이스샵에서 부담한다.

/정해민기자

악골괴사질환 치료연구센터 개소

이대목동병원 치과진료부가 난치성 악골괴사질환 치료연구센터(센터장 김선종)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

치과진료부는 이순남 이화의료원장·유권 이대목동병원장, 김선종 치과 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난치성 악골괴사질환 치료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치료연구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 소속으로 그동안 이대목동병원에서 진행된 임상 연구를 기초해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악골괴사질환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임상 연구와 치료 방법의 개발, 연구 발표 등을 통해 이 분야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연구센터 측은 기대하고 있다.

(왼쪽 세 번째부터)이순남 이화의료원장, 김선종 난치성 악골괴사질환 치료 연구센터장, 김경효 이화여대 의전원장 겸 의대학장,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이화의료원 제공

김선종 센터장은 "오랜 준비 기간 끝에 난치성 악골괴사질환 치료연구센터를 개소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임상 경험을 쌓고 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대목동병원 치과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센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센터가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의과학연구소가 후원하는 '난치성 악골괴사질환 치료연구센터 개소 기념 학술 강연회'가 다음달 5일 이대목동병원 의학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학철기자

뷰티 플래그십 스토어 무한진화

개인 화장품 제작·스파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제품 테스트·체험 넘어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

뷰티 플래그십 스토어가 진화하고 있다. 과거 제품 전시·샘플 증정 등 단순 프로모션을 펼치는 행사장의 역할에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터'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뷰티업계 관계자는 "최근 플래그십 스토어는 다양한 서비스와 컨텐츠로 브랜드 정체성과 문화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만을 위한 특별 서비스 제공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소비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들이다.

CNP차앤박화장품은 최근 청담동에 플래그십스토어 '르메디(Le Medi·사진 왼쪽)'를 오픈했다. 지하1층~지상 3층 규모로 각 층마다 다른 콘셉트로 운영하는데, 3층에서는 1대 1 정밀 피부진단 후 맞춤 화장품을 만들어준다.

리엔케이(Re:NK)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자에게 스파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급 호텔에서나 받을 수 있는 '스웨디시 마사지'를 바탕으로 새롭게 개발한 것으로 60분~90분 단위로 운영된다.

◆체험 통해 브랜드 콘셉트 전달

브랜드의 스토리나 제작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운영한 삼청동 SK-II 피테라 하우스는 주조사의 작업장을 재현한 공간에서 SK-II 피테라 에센스 제작 과정을 보여줬다. 특히 방문 고객들이 직접 효모 발효과정을 볼 수 있어 이색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에뛰드하우스의 명동 '프린세스 하우스(오른쪽)'는 공주의 성을 모티브한 플래그십 스토어로 나선형 계단과 예쁜 화장대들로 꾸며 볼거리가 다양하다. '프린세스 존'에서는 공주 가면·티아라·드레스 등을 착용하고 공주 체험을 할 수 있다.

◆쇼룸을 넘어 예술·휴식의 공간

샤라사는 '여성 뷰티 놀이터'라는 콘셉트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운영 중이다. 이 곳에서는 커피를 마시며 화장품도 발라보고, 친구와 수다를 떨 수 있어 쇼핑과 휴식이 한 번에 해결된다. 1000원에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 카페라테 등 7가지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마몽드의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는 꽃과 제품을 모티브로한 작품들이 전시돼 있다.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 벽면은 마몽드 시그니처 패턴·디자인·패키지 등을 볼 수 있도록 갤러리로 꾸몄다. 파우더룸 역시 마몽드 플라워 레드 플라워·화이트 플라워·블랙 플라워 등 4가지의 다른 분위기를 꽃으로 연출해 눈길을 끈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여성 패션 즐기는 남성↑

최근 남성 사이에서 여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화장품을 사용하는 '그루밍족'과 여성에게 인기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치장하는 '크로스 섹슈얼(cross sexual)' 바람이 불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외모도 경쟁력이라고 인식하는 남성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패션·뷰티 아이템에 대한 이들의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펼친 '맨즈 데이' 이벤트 기간에 남성 화장품 매출이 평시 대비 약 4배나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어느 때와 달리 여성보다 남성 구매자들의 객단가가 약 18%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남성들이 피부 관리에 많은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구매력 또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들에게 인기를 끈 제품은 사용이 간편한 올인원 아이템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선 제품을 비롯해 케이스 클렌저와 그루밍 키트 등이다. XTM 스타일 옴므 멀티-플레이어 올인원 기획세트는 평소보다 5배 넘는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쇼핑몰 AK몰에서는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최근 한 달간 남성고객 10만 명이 구매한 상품을 분석한 결과 크로스 섹슈얼 패션 아이템이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남성들의 클러치백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160%, 냉장고 바지는 631% 증가했다. 에코백의 경우 무려 1350% 신장했으며 여성만의 패션아이템으로 여겨지던 발찌의 판매량도 400%로 늘었다.

/정해인기자

패션업계 보상판매 활발

패션업계가 경기침체로 얇아진 소비자들의 지갑을 '보상 판매'로 열고 있다. 돈을 쓰더라도 좀 더 싼 것을 찾는 불황형 소비 심리를 반영한 마케팅 전략이다.

골프웨어 브랜드 잭니클라우스는 내년 론칭 30주년을 기념해 '리본(ReBorn) 프로모션'을 벌인다.

9월 30일까지 잭니클라우스 니트나 스웨터를 가지고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털실과 바늘로 구성된 '아동용 모자 털실 키트'를 제공한다. 또한 소장하고 있는 제품의 년도에 따라 올가을·겨울 신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율은 ▲1980년대 50% ▲1990년대 30% ▲2000년대 20% 등이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사진)도 9월 21일까지 사용하던 아웃도어 제품을 매장에 가져오면 새 제품을 살 때 결제 금액에 따라 2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해준다.

/박지원기자

"연기 재미 더 많이 느끼고 싶어요"

열일곱은 꿈꾸기도 바쁜 나이다. 그 나이에 한 아이의 엄마가 된다는 것, 더더구나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은 나이에 비해 너무 가혹한 짐일 것이다. 그러나 '두근두근 내 인생'의 주인공 미라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는다. 슬프고 힘들어도 어떻게든 삶을 긍정하려는 강인함의 중심에 배우 송혜교(33)가 있다.

다음달 3일 개봉하는 '두근두근 내 인생'은 17세 나이에 아이를 낳은 부모와 여든 살의 몸으로 17세를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송혜교는 슬픈 이야기를 신파로 풀어내지 않은 시나리오에 끌려 작품을 선택했다. 예전부터 같이 작업하고 싶었던 이재용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 그리고 '내 아내의 모든 것' '감시자들' 등을 만든 영화사 집이 제작한다는 사실까지 여러 면에서 마음이 움직인 작품이었다.

극중 미라는 세탁 공장에서 일하며 아픈 아들을 챙기는 엄마로 그려진다. 가난하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당찬 엄마다. 영화 '오늘'과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까지 우울한 캐릭터를 연이어 연기했던 송혜교는 미라의 밝은 성격에 매력을 느꼈다.

톱스타의 이미지가 강한 송혜교와 서민적인 캐릭터인 미라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송혜교는 그런 부담을 느끼지 못했다. 작품에서는 예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연기 철학 때문이었다.

"감독님과 의상팀, 분장팀 등 스태프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오직 연기에만 신경 썼어요. 영화 속 미라의 옷도 감독님이 직접 골랐죠. 분장하는 데 시간이 5분도 안 걸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현장에서 머리 망가지는 거 신경 안 쓰고 누워 잘 정도로 마음은 편했어요."

물론 연기는 쉽지 않았다. 미라가 지닌 밝은 모습에 끌려 작품을 선택했지만 그 밝음 속에 배어든 슬픔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이다.

"작정하고 슬픈 거면 그냥 감정을 이어가면 돼요. 하지만 이번 영화는 마냥 밝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밝은 모습 속에서 슬픔을 함께 전달해야 해 고민이 많았어요. 현장에서도 한 번의 테이크로 촬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테이크를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라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된 그 나이는 송혜교가 배우로서 막 연기 활동을 시작한 무렵이다. 스무 살 때 '가을동화'로 스타덤에 오른 그는 2005년에는 '파랑주의보'로 영화로 활동 무대를 넓혔다. 다만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드라마와 달리 영화에서는 흥행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미국 독립영화 '페티쉬'와 이정향 감독의 '오늘' 등 흥행성보다는 작품성 있는 영화를 선택하며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스타성보다 연기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행보다.

송혜교는 "연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된 건 서른이 넘어서부터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현장을 보다 즐길 수 있었고, 그 여유가 연기의 즐거움으로 이어졌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렸지만 그는 숨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길을 택했다. 적어도 작품만큼은 제대로 평가를 받기 바라는 책임감 있는 태도다. 어떤 지적도 스스로 안고 가려는 그 모습이 미라를 닮았다. 지금도 송혜교의 마음은 연기를 향해 있다.

"17년 동안 연기했지만 다양한 장르를 많이 못했어요. 20대 때 많은 작품을 하지 못한 것도 아쉽고요.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을 하면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장르와 캐릭터에 꾸준히 도전하고 싶어요."

/장병호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승승장구' 케이블·종편…'죽쑤는' 지상파

팬 프로게이머 홍진호, 가나 청년 샘 오취리, 영화평론가 허지웅.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케이블·종편(종합편성채널)이 낳은 예능 스타라는 것이다.

'마녀사냥' '썰전' 등을 통해 비지상파 예능 강자로 군림한 JTBC는 최근 '비정상회담' '유자식 상팔자' '님과 함께' 등 평일 밤 예능프로그램을 연이어 성공시켰다. 또 '보스와의 동침'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히든싱어3'로 주말 오후 시간대 공략에 나섰다.

'비정상회담'은 첫 방송 당시 '미녀들의 수다' '남성판'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방송 8회만에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6위에 올랐다. 한국 갤럽이 8월 19~21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는 MBC '진짜 사나이', KBS2 '개그콘서트'(공동 7위), MBC '아빠 어디가?'(10위) 등의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보다 높은 순위다.

JTBC가 단계 방송 중인 일부 프로그램은 앞서 지상파에서 먼저 시도됐던 것들과 유사하다. 하지만 한 단계 발전시킴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한다.

'비정상회담'은 한국인 게스트의 고민

JTBC '비정상회담'

'방송의 적' 존박

다양한 시도·스타 발굴 TV 예능 극과극 반응

을 두고 11개국 외국인 패널들과 다양하고 진지한 의견을 나눈다는 점에서 '미수다'보다 한 단계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히든싱어' 역시 MBC '나는 가수다', KBS2 '불후의 명곡'과 마찬가지로 노래를 소재로 삼은 예능이지만 가수 한 명과 모창 능력이 뛰어난 일반인들이 등장한다는 점이 다르다.

케이블·종편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배경엔 섭외 없는 캐스팅도 있었다. 지상파 예능이 중심급 MC와 인기 스타 캐스팅에 쥐 일 때 케이블·종편은 비연예인이나 외국인 등에 눈을 돌렸다.

홍진호는 tvN '더 지니어스'를 통해 프로게이머에서 방송인 변신에 성공했다. '훈남' 이미지가 강했던 가수 존박은 엠넷 '방송의 적'을 통해 낭만을 사랑하는 남자라는 다소 우스꽝스럽지만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얻었다. '비정상회담'의 출연진인 샘 오취리·에네스 카야·로빈 데이아나 등의 인기는 웬만한 연예인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다.

지상파 예능이 자도 베끼기, 재탕 논란, 편성 시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케이블·종편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 예능가 유행을 이끌어 가고 있다.

/김지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왁스

실력파 가수들이 소극장으로 모이고 있다.

올해 첫 소극장 콘서트를 개최한 아이유와 윤하, 그리고 그룹 인피니트도 그 해 여름2 로 팬들을 만났다. 규모가 줄어든 반면 기간을 늘려 조그만 공간에서 많은 팬들을 만났다.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효율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즐기려는 것이다.

윤도현 콘서트

이같은 분위기는 최근 컴백한 실력파 가수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록 보컬리스트 윤도현은 데뷔 이후 첫 단독 소극장 콘서트 '노래하는 윤도현'으로 관객과 만난다. 10월 2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총 12회 공연될 이번 콘서트는 '솔로 아티스트 윤도현'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무대다.

이번 공연에서 윤도현은 다음달 16일 발매 예정인 솔로 앨범 '노래하는 윤도현'의 수록곡뿐만 아니라 솔로 앨범, YB 앨범을 총망라한 다양한 명곡들을 선보인다. 또 어쿠스틱 기타, 피아노 등 악기 연주까지 직접 맡아 원맨 밴드를 방불케 하는 음악적 역량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솔로 앨범을 발매한 버스커버스커의 장범준도 소극장 공연을 연다. 오직 관객과 노래로 소통하겠다는 그의 의지가 묻어난다. 장범준은 9월 27일~10월1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예스24무브홀에서 '2014 장범준 클럽공연' 타이틀로 총 4주간 주말마다 8회 콘서트를 개최한다.

최근 프로젝트 앨범 '스파크'를 발매한 왁스는 11월 소극장 공연을 준비중이다. 지난 26일 열린 앨범 발매 쇼케이스 자리에서 왁스는 "관객과 대화를 나누며 편안하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은기자 [illegible]

신인 걸그룹 라붐 신선한 출사표

"평소 노는 모습 그대로 무대에서 보여주겠다"

"평소 노는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차별화입니다."

신인 걸그룹 라붐(솔빈, 율희, 해인, 유정, 소연, 지엔)이 기존 아이돌과 차별화를 선언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라붐은 27일 홍대 브이홀에서 데뷔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첫 번째 싱글 '쁘띠 마카롱'의 타이틀곡 '두근두근'과 수록곡 '어떡할래'를 선보였다. 이날 라붐은 신곡 안무를 통해 기존 아이돌 그룹과 차별화했음을 밝혔다.

아이돌 그룹의 전매특허인 칼군무보다 한 편의 뮤지컬을 연상케하는 안무로 구성해 멤버 개개인의 매력을 드러냈다. 특히 '두근두근' 무대에서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안무와 동선이 인상적이다. 여기에 누구나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는 포인트 안무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날 쇼케이스에서 라붐은 "다양한 매력을 보여드리고, 신선한 그룹이 되고 싶다"고 입을 열었다.

율희는 "라붐은 우리만의 색깔과 분위기 에너지가 넘치는 특별한 그룹이라고 생각한다"며 "평소 노는 것처럼 무대를 즐긴다.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걸그룹과의 차별화"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해인은 "우리의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유정은 "프랑스어로 '파티를 뜻하는 팀명을 지닌 만큼 여러 종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릴 준비가 돼 있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장성은기자

라붐 멤버들이 27일 데뷔 쇼케이스에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다.

될 것도 안 되는!
네 남자의
사나운 로맨스
tvN 금토드라마
아홉수 소년
9 19 29 39
매주 금,토 저녁 8시 40분 tvN 방송 / 8월 29일 첫방송
김영광 | 경수진 | 오정세 | 유다인 | 육성재

KBS2 월화극 '연애의 발견' 정유미·문정혁

SBS 예능프로그램 '달콤한 나의 도시'

드라마·예능 30대 여성 집중 조명

드라마와 예능이 30대 여성을 조명한다. 몇 년 전만 해도 드라마 속 30대 여성은 재력과 명예를 기반으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골드미스로 그려졌다. 그러나 현재 방영 중인 KBS2 월화극 '연애의 발견'과 오는 27일 첫 방송될 예정인 SBS 예능 프로그램 '달콤한 나의 도시'는 30대 여성들의 사랑·다이어트 같은 일상을 이야기한다.

'연애의 발견' 한여름(정유미)은 32세 가구 디자이너다. 그는 20대에 계절이 변하는 줄도 모를 정도로 사랑에 열정적이었다. 이와 달리 서른두 살이 된 한여름은 영리하게 연애한다. 꿈 같은 로맨스, 닭살 돋는 대사가 없다. 생활형 대사로 몰입도를 높이고 있으며 한여름의 행동은 여성 시청자의 연애 지침서가 되고 있다. 연애사를 공유하는 친구들, 잠자리에 얽힌 남녀 관계, 욕구를 표현하고 실천해야 하는 여주인공의 설정도 재미를 더한다. 시청자는 "세대가 원하는 리얼한 드라마", "추억이 떠올랐어요"라며 공감한다.

영리한 사랑 그리는 '연애의 발견'
일반인 출연 리얼 예능 '달콤한…'

'달콤한 나의 도시'는 서른 살 즈음의 일반인 여성 4명의 일상을 가감 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남자친구가 없는 미모의 변호사부터 올 11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대기업 사원, 살짝 4차원이라 슬프고 발랄한 영어 강사, 나이 서른에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야 하는 헤어 디자이너까지 방송은 이들이 실제로 연애·결혼·쇼핑을 하고 다이어트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제작진은 지난 25일 30대 여성을 선택한 이유로 "가장 매력적이면서 고민이 많은 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출연진이 처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내 시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이 30대 여성의 일상을 조명하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사회적 호기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30대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드라마가 보여 주는 재력있는 30대 골드미스가 비현실적인 설정이라는 의견이 상당하다.

/전효진기자 jeonhj@metroseoul.co.kr

김가연-임요환 "3년 전 혼인신고"
결혼생활 관련 악플러 91명 고소

배우 김가연과 프로게이머 임요환 부부가 방송에서 결혼과 관련한 세간의 궁금증에 대해 답했다.

김가연과 임요환은 26일 방송된 tvN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해 "2011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부부로 산 지는 3년이 됐다. 현재 대학교 1학년 딸과 같이 살고 있다"고 밝혔다. 김가연은 "결혼식 타이밍을 놓쳤고 제가 50세가 되기 전에는 결혼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가연과 임요환은 8세 연상녀·연하남 커플이자 김가연이 이미 전 남편과 결혼해 딸을 두고 있다는 사실로 화제를 모았다. 김가연은 "아직 시귀자는 말도, 프러포즈도 없었다. 신혼여행도 안 갔다. 혼인신고만 했다"고 말했다.

임요환은 "처음 아내를 집에 데리고 갔을 때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런데 작은아버지가 잘 어울린다며 도와줬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오랜 기간 악플러들에 시달려왔고, 김가연은 앞서 80명을 고소했고 최근 11명을 추가해 91명의 악플러를 고소했다.

김가연은 "가만히 놔두니 없는 소문도 만들어내고 그게 눈덩이처럼 불더라. 가족 욕은 듣기 언짢더라"며 "처음 고소를 했을 땐 악플러들이 대부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일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10대는 고등학생 두 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성인이더라. 직장인, 대학생 등 20~30대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

tvN '택시'에 출연한 김가연·임요환 부부

로코를 보면 '남자'가 보인다
'연애…' 문정혁·성준, '괜찮아…' 조인성 남녀 시청자 공감↑

"대충은 지고 살지만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둬."

KBS2 월화극 '연애의 발견' 남하진(성준)은 이 말을 하며 여자친구의 옛 연인에게 신방을 날린다. 그 동안 남하진은 자기 주장이 강한 애인을 한없이 이해해 줬다. 그는 내레이션을 통해 "내 것을 지키겠다는 남자의 본능"이라고 자신이 한 말을 해석한다.

'연애의 발견' 문정혁·성준과 SBS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은 현실적인 로맨스를 담아내고 있다. 이에 남성 시청자는 공감하고 여성 시청자는 남자를 배우고 있다.

'연애…' 강태하(문정혁)는 툴툴거리는 말투로 차가운 인상을 준다. 그러나 한여름(정유미)과 이별 후 사랑의 감정을 느껴본 적 없는 순정파다. 옛 애인과 재회하자 숨겨진 기질이 다시 발동했다. "지금 애인 버리고 나한테 올래?"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한여름과 강태하의 이별은 오해에서 비롯됐다. 한여름의 생각과 달리 강태하는 배려가 많은 남자다. 지나친 배려가 여자에겐 독단으로 비쳐진 셈이다. 내보이지 않고 은근하게 관심을 갖는 자상함이 매력적인 캐릭터다.

남하진은 한여름의 손에 핸드크림을 직접 발라주는 다정한 남자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여자 친구를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여자들이 원하는 남성상이다. 한여름의 여우 같은 행동에도 "끝까지 여겨먹을래?"라면서도 속아 준다.

이에 여성 시청자들은 "여자 친구를 끝까지 믿어주는 모습이 든든하다", "여우짓도 귀엽게 봐주는 남자가 있어 이 연애 기술이 된다"고 호응한다.

'괜찮아…' 조인성은 매력적인 남자의 정석을 보여준다. 설득 당하고 싶은 솔직함은 여심을 설레게 한다. 지속적으로 사귀자고 말하며 "나랑 사귀면 내 매력에 깜짝 놀랄걸?" "그럴게 안보이겠지만 나 의외로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여자가 '하지마'라고 하면 절대 안 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그의 밀당 기술은 남성 시청자의 연애 지침서가 될 만하다. 관계 불안증을 앓고 있는 지해수(공효진)에게 함께 여행 갈 것을 제안했고 지해수는 응큼한 속내를 의심한다. 이에 장재열은 "여행을 전도 빼려고 가니? 자연 보러 간다"며 지켜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이 아닌 "사건·사고나 다른 남자로부터 애인을 지키겠다는 말"이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함께 출연 중인 이광수는 장재열의 행동과 대사에 대해 "남자인 내가 봐도 설렌다"며 "거울을 보고 조인성의 대사와 표정을 따라 해 봤었다"고 고백했다.

/김효진기자

KBS2 월화극 '연애의 발견' 성준

SBS 수목극 '괜찮아 사랑이야' 조인성

"추진력 지닌 캐릭터에 공감"

메간 폭스 '닌자터틀'로 5년 만에 내한

트랜스포머 시리즈로 스타덤에 오른 할리우드 배우 메간 폭스가 5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영화 '닌자터틀'의 홍보를 위해서다. 27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내한 기자회견에는 메간 폭스와 조나단 리브스만 감독, 제작자 앤드류 폼 브래드 풀러가 참석했다.

그동안 메간 폭스는 '트랜스포머'에서 보여준 섹시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번 '닌자터틀'에서는 사명감 넘치는 기자 에이프릴 오닐 역을 맡아 새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메간 폭스는 "에이프릴 오닐은 성공하고픈 기자로 집중력 강하고 긍정적이며 추진력이 강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역할에 공감한 부분도 바로 용기와 추진력이었다. 그는 "나도 에이프릴 오닐처럼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신념이 있다면 그것을 추진하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섹시한 이미지로 각인된 만큼 '닌자터틀' 속 정의감과 사명감에 투철한 메간 폭스의 모습은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메간 폭스는 "섹시함과 정의로움과 사명감은 상반된 개념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젊은 기자들이 범죄 현장을 어떻게 취재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조사했다"며 역할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음을 강조했다.

액션에 얽힌 에피소드도 털어놨다. 메간 폭스는 "스턴트 연기를 최대한 직접 소화하려고 했다. 그런데 촬영 시작하고 3주 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다. 와이어 액션 같은 것은 직접 소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나단 리브스만 감독은 "메간 폭스는 '트랜스포머'에서 보여준 것처럼 액션 연기를 잘 하는 배우다. 다만 임신 이후에는 직접 스턴트를 하지 않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메간 폭스가 27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내한 기자회견에 앞서 늘씬한 몸매가 돋보이는 자세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하루 전인 26일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서 메간 폭스는 "'닌자터틀'은 내가 출연한 작품들 중에서도 자랑스럽게 소개할 때작이 큰 작품"이라며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1990년대 초반에 나온 두 편의 실사영화의 팬이었다는 메간 폭스는 "원작 팬으로서 좋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한국 팬들에게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에 감동받았다"며 감사 인사도 빠트리지 않았다.

'닌자터틀'은 악당 슈레더에 맞서 뉴욕을 지키려는 닌자 거북이들과 열혈 기자 에이프릴 오닐(메간 폭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1984년에 나온 코믹스 '닌자 거북이'를 실사화한 영화다. 28일 개봉한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하우스', '타짜2' 숨은 볼거리

세 가지 콘셉트 미술·조명으로 변화

영화 '타짜-신의 손'(감독 강형철)이 영화의 주요 무대로 등장하는 하우스에 담긴 제작 비하인드를 공개했다.

'타짜-신의 손'에 등장하는 하우스는 도박이 벌어지는 장소로 영화의 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중요한 공간이다. 제작진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여러 느와르 영화들을 참고해 영화 속 하우스를 제작했다.

영화에는 주인공 대길(최승현)이 타짜로 승승장구하는 강남 하우스, 첫사랑 미나(신세경)를 구하기 위해 운명의 내기를 펼치는 유령 하우스, 목숨을 건 승부를 펼치는 아귀 하우스 등 세 가지 하우스가 등장한다.

김시용 미술 감독은 "강남 하우스는 화투판의 화려함을 맛보게 되는 공간으로 꽃에서 영감을 받았다. 유령 하우스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올 지옥을 콘셉트로 60년대 느와르 영화를 참고했다. 아귀 하우스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세계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단단한 돌과 짙은 질감의 나무 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명도 공간마다 차이를 뒀다. 홍승철 조명감독은 "캐릭터의 변화에 따라 조명 콘셉트를 달리 했다. 강남 하우스는 화려한 색감을 썼고 아귀 하우스에서는 정통 느와르의 묵직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공간에 따른 미술과 조명의 변화로 영화는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를 선사할 전망이다.

'타짜-신의 손'은 삼촌 고니를 닮아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손재주와 승부욕을 보이던 대길이 타짜 세계에 겁 없이 뛰어들면서 목숨줄이 오가는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 다음달 3일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AKB48 마에다 아츠코 배우 변신

'다마코' 내달 국내 개봉

일본 아이돌 AKB48 출신 마에다 아츠코(사진)가 배우로 변신한 영화 '모라토리움기의 다마코'(감독 야마시타 노부히로)가 다음달 11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다.

마에다 아츠코는 2005년 일본 최고의 아이돌로 불리는 AKB48의 스타팅 멤버로 데뷔했다. AKB48을 대표하는 멤버로 인기를 누렸던 마에다 아츠코는 2012년 그룹 졸업 이후 배우로 전향해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2012년에는 '린다 린다 린다' '마음에 부는 산들바람'으로 잘 알려진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의 영화 '고역열차'에 참여해 다수의 영화제를 휩쓸며 일본 영화계를 이끌어갈 차세대 여배우로 인정받았다. 평소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의 연출 스타일을 좋아해온 그는 '고역열차'의 첫 무대인사에서 '모라토리움기의 다마코' 출연 제안을 받고 아무 존재하지 수락했다.

'모라토리움기의 다마코'는 외로운 홀심 아빠와 하고 싶은 게 아무 것도 없는 백조 딸의 좌충우돌 동거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마에다 아츠코는 주인공 다마코 역을 맡아 아이돌 이미지에서 벗어난 현실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야마시타 노부히로 감독은 "마에다 아츠코와 재미있는 작품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마코는 마에다 아츠코를 염두에 두고 만든 캐릭터다. 그는 감독에 따라 바뀌는 유연한 연기자"라고 칭찬했다. 마에다 아츠코는 이 작품으로 제23회 일본 영화 프로페셔널 대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해 연기력을 인증 받았다. /정병호기자

김동욱·임원희·손호준 '해운대 습격?'

김상진 감독 신작 '쓰리 썸머 나잇' 촬영 개시

김상진 감독의 신작 '쓰리 썸머 나잇'이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에서 첫 촬영에 들어갔다.

'쓰리 썸머 나잇'은 팍팍한 삶에 지친 명석(김동욱), 달수(임원희), 해구(손호준) 세 친구가 화려한 일탈을 꿈꾸며 내려간 해운대에서 인생 최대의 난관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3일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지난 21일 진행된 첫 촬영은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일대에서 진행됐다. 군 제대 후 스크린에 돌아온 김동욱은 "첫 촬영부터 배우들과 감독님, 스태프들의 호흡이 잘 맞았다. 재미있는 현장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호준은 "해운대의 기운을 받아 유쾌하게 촬영해 기분이 좋다. 시원하고 재밌는 영화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쓰리 썸머 나잇'은 '주유소 습격사건' '신라의 달밤' '광복절 특사'의 김상진 감독이 선보이는 코미디다. 김동욱, 임원희, 손호준 외에도 윤제문, 류현경, 심은진 등이 캐스팅됐다. /장병호기자

날씨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9		5		
4			8				6	
		7	4		3		2	
3			2	7				
	2	9				8	3	
				3	9			4
	3		6		5	4		
	7				2			1
		1		4				5

3		1					5	
4	7		1			6	2	
			3	7				8
	2	3						4
			9		7			
6						9	1	
7				3	5			
	4	6			1		8	7
	3					2		5

스도쿠 정답

[illegible]

문제제공: 보누스
'연사 스도쿠 프리미어' (제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호박은 마법의 열매

윤덕노의 푸드스토리

서양에서 호박은 마법의 열매다. 마법 이야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동화 신데렐라도 그중 하나다. 계모의 구박에 시달리며 부엌에서 재를 뒤집어쓴 채 일하던 아가씨 신데렐라를 왕자와 맺어주는 도구 중 하나가 호박이다. 요정이 마술지팡이로 호박을 마차로 만들어 무도회장의 왕자에게 데려다주기 때문인데 요정은 왜 하필 호박을 마법의 마차로 만들었을까?

핼로윈 행사에도 호박이 등장한다. 핼로윈의 상징인 잭 오 랜턴은 커다란 호박 속을 파낸 후 도깨비 얼굴로 조각을 하고 그 속에다 초를 고정시켜 만든다. 고대 켈트족의 전설에서 비롯된 할로윈은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암흑의 세상인 구천을 떠도는 영혼들이 인간에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때문에 무서운 모습으로 조각한 호박 등(燈)으로 악령과 마녀를 쫓아 사람을 보호한다는 것이니 호박에 악령을 쫓는 마법의 힘을 담았다.

호박이 가진 마법의 이미지는 현대에도 이어지고 있다. 해리포터에서 호박주스는 마법세계의 청량음료다. 마법학교인 호그와트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호박주스 마시면 금방이라도 마법의 힘이 생길 것 같은 이미지다. 반면 마법과 관련 없는 일반인들, 다시 말해 머글의 세계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은 호박주스를 마시지 않는다. 오렌지주스를 마실 뿐이다. 호박이냐 오렌지냐가 마법의 존재 유무를 가르는 상징이 된다. 선악과하면 사과를 떠올리는 것처럼 서양동화에서 호박하면 마법이 연상되는데 호박은 왜 이렇게 마법의 이미지를 갖게 됐을까?

사실 호박은 옛날 유럽과는 관련도 없는 작물이다. 미주대륙이 원산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호박이 많은 사람을 구했다는 사실이다. 미국 정착민이 첫해 농사에 실패했을 때 원주민이 마법처럼 전해준 작물이 옥수수와 호박이었다. 호박이 처음 조선에 전해졌을 때도 가난한 농민은 호박으로 끼니를 삼았다. 혹시 호박이 배고픈 이들의 허기를 달래주었기에 마법의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음식문화평론가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복지관서 소일, 역학공부 도움될까
기초부터 배우고 집은 팔지 마세요

Q 양력이 여자 51년 11월 1일 (음력) 오전 10시

저는 메트로에 상담을 올릴 때 남녀구분과 음력과 양력 년월일시를 명확히 해야 정확한 사주 상담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하여 신경을 써서 올립니다. 남편은 2년 전 간암으로 저세상을 갔으며 아들딸은 지금은 다들 흩기했습니다. 남편이 집한 귀퉁이에 가게를 만들어 놓은 것을 임대를 주어 100만원 남짓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지내고 있는데 몸이 아파 병원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역학에 관심이 있는데 공부를 하면 남의 사주를 봐줄 정도가 될 수 있나요.

A 생일간(日干)이 생일(生日)이 입력 10월에 태어나 천계 구조의 구성된(引) 목화토금수(木火土金水)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칠살격(七殺格)으로 나를 괴롭히는 오행이니 식신(食神)이 내가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것으로 재살(財殺) 살을 제거(制)해야 하나 원조(사주구조)에 없어서 건강의 상실은 번복될 것입니다. 상관(傷官)이 내가 생해준이 있으나 술토(戌土)의 묘지(墓地)에 자리를 하고 있으며 시지(時支)에 사화(巳火)로 살기 쌍(雙)기를 뻗(맞김)하니 어떤 이유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변화를 꾀하게 되고 2015년 집을 판다면 재산을 잃게 됩니다. 내 자신이 감건 하지 못하고 용이 하늘에 오르지 못 할 과 같으니 좋은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데 자녀 중에 누군가가 집을 잡자는 계획을 할 것이니 무토(戊土) 재성(財星)으로 의류(衣類)하는 극제(剋制)의 심분은 일관성이 없고 심리구조가 상당히 복잡하여 스스로 환경을 따고 일을 크게 벌이지만 돈 시간만 날리게 됩니다. 타어난 생월간에 무계합(戊癸合)하여 과부자상으로 공방수를 임시하니 남편이 임진년(壬辰年)에 진좋에 계수와 지지에서 술토(戌土)가 충살(沖殺) 충돌하고 뿌리 맞는 흉함을 받으니 맘으로 돌아가신 술은 길이 생겼군요. 운세은 아름다우나 고집이 센 편이며 천리지망살(天羅地網殺) 하늘과 땅이 그물을 쳐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극복되도록 역학 공부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노인복지 회관이나 문화원에서 공부나 강의를 다녀도 좋으며 역학공부도 범위가 넓으므로 미리 하부터 시작해서 차분하게 기초부터 잘 다져 나가도록 하세요. 열심히 하다보면 그다음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사주를 묻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8일 (음 8월 4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귀한 손님오니 대비하라. 60년생 조직의 중책을 맡아서 어깨가 무겁다. 72년생 일이 잘 풀려도 방심은 절대 금물~ 84년생 무리하면 후회만 남는다.

소 49년생 자만심은 화를 부른다. 61년생 꿈이 불길하면 외출 자제할 것. 73년생 성관은 쏟아지나 이득은 미미하다. 85년생 변수가 많으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호랑이 50년생 결과 뻔한 일이라도 최선 다하라. 62년생 공들인 거래는 성사된다. 74년생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할 것. 86년생 남과 비교하면 나만 불행하다.

토끼 51년생 공들인 일은 성과 거둔다. 63년생 착한 자식 때문에 기분이 좋구나. 75년생 힘을 서두르면 허자가 생긴다. 87년생 연인의 농담에 뼈가 있으니 잘 파악할 것.

용 52년생 진한일 나쁜리라 말라. 64년생 일찍 선 일은 순조롭다. 76년생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는 날~ 88년생 자신을 컨트롤 하는데 신경 써야 한다.

뱀 53년생 생색만 내는 배우자 얄밉다. 65년생 도우미가 있으니 용기 내어 보자. 77년생 생각이 많으면 전진 못한다. 89년생 젊어선 고생 사서 한다는 일 명심~

말 42년생 진안에 웃음이 넘어 즐겁구나. 54년생 멀리서 반가운 소식 날아든다. 66년생 문자 때문에 배우자에 오해 사지 않도록~ 78년생 남쪽에 가면 행운이 따른다.

양 43년생 사소한 걱정이 생긴다. 55년생 하나를 주고 열을 얻는 일을 선택할 것. 67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79년생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니 마음 비워라.

원숭이 44년생 배우자에 툴툴대지 말라. 56년생 이기 없어 덧으로 사는 격이다. 68년생 현이 든다고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라. 80년생 친구 눈물 닦아줄 일이 생긴다.

닭 45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은 소식 있다. 57년생 우울기서 승능 찾지 말라. 69년생 기다리던 소식은 다소 지연이 된다. 81년생 칭찬을 받을수록 더 겸손할 것.

개 46년생 운기가 들려하니 움직이지 말라. 58년생 고집을 부리면 원따 자초한다. 70년생 공들인 일은 결실 맺으니 기대하라. 82년생 운기가 열려 거침이 없다.

돼지 47년생 진심은 적도 움직인다. 59년생 주어니는 박업지인 행복한 마음은 가득~ 71년생 불안한 마음 서서히 진정된다. 83년생 질투하는 사람이 많으니 매사 언행 조심~

맨유 추락 어디까지… 3부 팀에 완패

캐피털원컵 탈락…디 마리아 영입 반전 꾀해

세계적인 명문 클럽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의 추락이 계속되고 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맨유가 3부 리그 팀인 MK돈스에 0-4로 완패하는 굴욕을 맛봤다. 27일 영국 버킹엄셔의 MK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4~2015 캐피털원컵 2라운드 경기에서 카가와 신지, 하비에르 에르난데스 등 1.5군을 내세웠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고 패했다.

카가와 신지와 에르난데스는 이날 경기에서의 부진으로 최근 나도는 이적설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난해 리그 7위로 시즌을 마감한 맨유는 명장인 네덜란드 출신의 루이스 판할 감독이 부임하며 대대적인 팀 개편에 나섰지만 결과는 시원치 않다.

리그 개막전 클럽 대항전인 2014 기네스 인터내셔널 챔피언스컵에서 전승으로 우승하며 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정규리그 시작 후 이날 경기까지 3경기에서 1승도 올리지 못했다.

특히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이 쏠린 스완지시티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는 기성용에게 선제골을 허용하며 1-2로 패했다. 이어 선덜랜드와 2라운드에서는 1-1 무승부를 거뒀했다.

이날 경기에서는 전반 25분과 후반 18분 윌리엄 그릭에게 연속골을 허용했고, 후반 25분과 38분 베닉 아포베에게 2골을 더 내줬다.

극도로 팀 분위기가 침체된 맨유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공격수 앙헬 디 마리아(26) 영입을 공식 발표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다. 전력 보강이 시급했던 맨유는 파리 생제르망(프랑스), 맨체스터시티(잉글랜드) 등 부자 구단과의 경쟁에서 확고한 베팅으로 디 마리아 영입에 성공했다.

디 마리아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인 5970만 파운드(약 1006억원)의 몸값을 기록하며 계약 기간 5년에 맨유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전 최고 이적료는 첼시가 리버풀에서 페르난도 토레스를 데리고 오면서 지불한 5000만 파운드였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루이스 판할 감독이 27일 영국 버킹엄셔의 MK 스타디움에서 열린 캐피털원컵 2라운드에서 잉글랜드 3부 리그 팀인 MK돈스에 패한 후 멍하니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다. /AP 뉴시스

역대 유럽 최고 이적료는 지난해 가레스 베일이 토트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옮기며 기록한 8600만 파운드(약 1449억원)다.

디 마리아는 맨유의 측면 공격수와 공격형 미드필더 등 전천후 공격수로 활약할 예정이다. 그는 "루이스 판할 감독은 많은 성과를 올린 환상적인 사령탑"이라며 "당장에라도 경기에 나서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metroseoul.co.kr

"축구대표 감독 4~5명으로 압축"

이용수 위원장 "조건 완화"… 핀토 영입 대상 제외

축구 대표팀의 새 사령탑 윤곽이 드러났다.

이용수(사진)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27일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KFA 제2차 봉사활동 '그라운드의 작은 나눔' 행사에서 "차기 감독 후보군을 4~5명으로 압축해 협상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1순위 후보였던 네덜란드 출신의 베르트 판 마르베이크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된 후 새 감독 영입 계획을 원점으로 돌린 협회는 새 후보군을 정하고 막바지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대한 좋은 조건을 만족하는 감독을 찾으려 했던 협회는 선정 기준을 다소 완화해 후보군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 위원장은 "명장을 모시면 좋겠지만 국가대표 감독이나 클럽에서 어느 정도 지도자로서 경험이 있는 분을 뽑으려고 한다"며 "기술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감독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연봉에 대한 부담도 크다"고 설명했다.

압축된 후보 중 우선 영입 조건으로는 한국 축구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가진 감독이라고 이 위원장은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국 대표팀 감독 자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령탑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태"라며 "월드컵 예선부터 치러야 하는 점 등이 부담을 주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많은 감독이 유럽에서 활동하고 싶어 한다. 현직에 있지 않아도 유럽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대답을 한 감독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한편 유력한 영입 후보로 알려진 콜롬비아 출신의 호르헤 루이스 핀토 감독에 대해서는 "애초 차기 사령탑으로 고려한 후보 중 한 명이긴 했지만 축구협회 차원에서 직접 접촉한 적이 없다. 핀토 감독은 압축된 후보군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유순호기자

불펜피칭 'OK' 복귀 초읽기

류현진 28일 시뮬레이션 피칭 후 등판일 결정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다저스·사진)이 부상 회복 마무리 점검을 치르며 복귀 초읽기에 들어갔다.

류현진은 27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다저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에 앞서 불펜피칭을 했다. MLB닷컴에 따르면 전력 투구를 하지 않았지만 32개의 공을 던졌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28일 재활의 마지막 단계인 시뮬레이션 피칭을 소화한다. 주자를 세워놓고 실전과 비슷한 상황에서 타자와 상대하는 훈련이다.

돈 매팅리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이 이르면 9월 1일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할 수 있다"고 했다. 30일엔 하렌, 31일 잭 그레인키에 이어 다음날 1일 선발은 예고하지 않고 비워뒀다.

류현진이 시뮬레이션 피칭을 무난하게 소화하면 1일 경기에 등판할 예정이다. 오전 5시 10분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리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원정경기다.

류현진은 14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등판해 6회초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자진 강판했다. 오른쪽 엉덩이 좀둔근과 이상근 염좌로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재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유순호기자

AFC 챔피언스리그 전적 (27일)

서울	3	0	포항

승부차기 승

프로야구 전적 (27일)

■잠실

팀				계
LG	220	100	000	5
두산	000	000	010	1

[illegible]

■목동

팀				계
KIA	400	000	000	4
넥센	012	010	02X	6

[illegible]

■대전

팀				계
NC	000	110	001	3
한화	007	000	00X	7

[illegible]

■사직

팀				계
삼성	200	100	100	4
롯데	001	401	05X	11

[illegible]